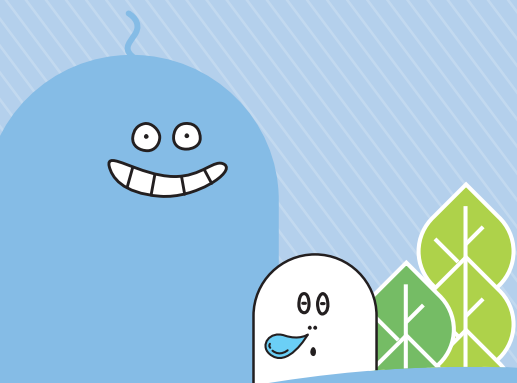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3·1

초등 국어



◦ 진도 교재		2
◦ 평가 교재		41



8쪽

10쪽

11쪽

12~13쪽

9 '나'는 마을 깊은 골목 안쪽에서 크고 살찐 개를 만났고, 그 개에게 '바삭바삭'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나'는 정말 행복했고, '바삭바삭'을 꼭 물고 달리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11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친구들은 '바삭바삭'을 먹고 있었습니다.

채점 기준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갈매기 친구들의 모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2 '나'는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친구들을 보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13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4 고양이를 만난 '나'는 깜짝 놀라서 튀어 올랐고 잘 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15 아침 해가 뜨고 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자 마음이 편안해져서 멀리 날 수 있었습니다.

16 이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부분이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인물이나 일어난 일, 감각적 표현 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잘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18~22쪽

1 장승 마을 2 ④ 3 ④

4 민영

5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등

6 ① 7 ⑤

8 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멧쟁이 장승이 안타까웠다.

9 ⑤ 10 ①

11 멧쟁이처럼 잡혀갈까 봐 등

12 예 멧쟁이 장승님, 도둑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13 화난 마음 등 14 ④

15 끝까지 장승 마을을 지키겠다. 등

16 ② 17 ⑤ 18 ②

19 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20 예 친구들끼리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기차 타고 쿵쿵, 버스 타고 툼툼, 다시 타박타박 반나절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의 배경

- 장소: 장승 마을
- 시간: 지루한 한낮
- 나오는 인물: 멧쟁이, 통눈이, 빠드렁니, 짱구, 주먹코

2 “하하, 넌 이가 빠드려져 수박 먹기 좋겠다.”라고 멧쟁이가 놀린 말에서 빠드렁니의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3 장승 친구들은 밤이 되면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서 신바람이 납니다.

4 장승 마을에서 장승 친구들은 다투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신나게 놀면서 지내기 때문에 쓸쓸해 보인다는 수미의 말은 알맞지 않습니다.

5 장승 친구들은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6 장승 친구들은 밤이 되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숨바꼭질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으므로 밤에 깊이 잠든 모습은 이야기 속 장면을 상상한 것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장승 친구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

- 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해요.
-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아요.
- 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

7 멧쟁이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날이 밝은 줄도 몰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8 이야기 속 장면을 상상하며 일어난 일이나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의 내용에 맞게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멧쟁이는 얼굴이 곰팡이도 슬고 조금씩 썩어 가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10 사람들이 용기를 가져가더니 멧쟁이도 데려가 버렸습니다.

11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멧쟁이처럼 잡혀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12 멧쟁이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무엇을 물을지 생각해 씁니다.

채점 기준 멧쟁이가 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물음을 글의 내용에 알맞게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인물이 이야기 속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13 통눈이는 멧쟁이를 두고 도망가자는 말에 화가 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14 장승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잡혀간 멧쟁이를 어떻게 할지 생각이 달라서 싸웠습니다.

15 장승 친구들은 옹기 할아버지와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6 장승 친구들은 멧쟁이를 구하기 위해 옹기랑 멧쟁이를 싣고 가는 도둑들을 놀래 주기로 했습니다.

17 도둑들은 도깨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18 빠드렁니는 멧쟁이를 놀렸던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19 힘을 합쳐서 멧쟁이를 구한 빠드렁니의 기분을 짐작하여 답을 해 봅니다.

20 힘을 합쳐서 멧쟁이를 구한 장승 친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씁니다.

채점 기준 장승 친구들이 한 일을 잘 파악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3연에서 강아지풀을 ‘요요요 / 요요요요’ 정답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3 이 시를 읽으면 숲길에서 강아지풀을 보고 만지면서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4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하듯이 시를 낭송할 수 있습니다.

5 이 시를 읽으면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울면서 떼쓰는 동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6 우는 동생을 보며 아기 고래를 떠올린 부분을 어떻게 낭송하면 좋을지 생각해 씁니다.

채점 기준 시의 내용을 파악하여 말하는 이가 동생이 아기 고래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 부분에 어울리게 낭송하는 방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울음을 내뿜는 동생을 보면서 물을 내뿜는 아기 고래를 떠올린 것입니다.

8 동생이 어떻게 울었는지 떠올리며 실감나게 표현해 봅니다.

국어 활동

25~27쪽

- 1 (1) 송송송 (2) 졸졸졸
2 꼭 그림자 극장
3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등
4 ③ 5 ④
6 꼬리로 바닥을 툇툇 친 것 등
7 ② 8 (3) ○
9 (1) 옹기장이 (2) 멧쟁이 (3) 도배장이

실천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

23~24쪽

- 1 ④ 2 요요요 / 요요요요
3 ② 4 현우 5 ⑤
6 예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이 뒷부분을 올려서 낭송한다.
7 ④ 8 예 우아앵! 우아앵!

1 이 시에서는 강아지풀 모습을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귀여운 강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1 ‘바위 틈새 속에서 / 쉬지 않고 송송송.’, ‘맑은 물이 고여선 / 넘쳐흘러 졸졸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벽에 감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니다.

3 감나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만만이가 응석을 부릴 때 내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해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 ‘나’와 동만이는 밤에 만만이가 내는 피리 소리가 들리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5 '나'와 동만이는 만만이가 계속 삐익삐익 소리를 내자 만만이를 만만이 집에 넣어 주려고 나갔습니다.
- 6 만만이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7 ㉠은 감나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냈고, 이 소리를 듣고 '내'가 파도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 8 감각적 표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 9 웅기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웅기장이'라고 하고, 멧을 잘 부리는 사람을 '멧쟁이', 벽에 종이를 붙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도배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단원 마무리

28~29쪽

- | | | |
|-------|-------|------|
| ① 감각적 | ② 비 | ③ 냄새 |
| ④ 멧쟁이 | ⑤ 강아지 | |

단원 평가

30~32쪽

- 1 (1) ② (2) ① 2 감각적 표현 3 (2) ○
- 4 소나기 내리는 소리 5 ②
- 6 예 빗방울을 콩이라고 표현한 게 재미있다.
- 7 송송송 8 과자 등
- 9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 10 ④, ⑤ 11 ④ 12 ⑤
- 13 예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 14 ④
- 15 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16 손으로 만지는 느낌 17 ②
- 18 요요요 / 요요요요 19 (내) 동생
- 20 은주

- 1 진수는 개나리는 “푹!” 하고 꽃이 피어나고, 진달래는 “팡!” 하고 꽃이 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 2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 3 새싹이 움트는 모습이므로 '새싹의 초록빛 발차기'가 어울립니다.
- 4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 5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 마당에서 실로폰을 연주하는 모습, 소나기가 그친 후 높고 파란 하늘의 모습이 떠오르는 시입니다.
- 6 시의 내용과 감각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씁니다.

채점 기준 이 시를 읽고 시의 내용, 장면, 감각적 표현 등에 대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송송송'은 샘물이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고, '줄줄줄'은 샘물이 넘쳐흐를 때 들리는 소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 8 배에서 아이들이 던졌고,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과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9 '바삭바삭'에서 나는 냄새를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다고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 10 생선 대가리는 끈적거리고 비린내가 나며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 11 '개구장이'는 '개구쟁이'로 써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이고, '-쟁이'는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 12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13 이야기 속 장면을 빈칸에 알맞게 씁니다.
- 14 멧쟁이는 날이 밝았는데도 돌아가지 못해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15 인물이 이야기 속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멧쟁이에게 일어난 일에 맞는 물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6 강아지풀을 손으로 만지듯이 표현한 부분이므로 만지는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낭송합니다.



실천

문단 만드는 놀이 하기

41쪽

1 예 공기놀이 / 제기차기 2 준비물

3 ①

4 예 딱지치기를 할 때의 준비물은 딱지를 접을 수 있는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입니다. 그리고 딱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종이 두 개를 엇갈리게 접어 네모 모양으로 만든 뒤 바닥에 있는 상대의 딱지를 쳐서 넘기는 것입니다.

- 1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생각하여 써 봅니다.
- 2 딱지치기 놀이에서 딱지를 접을 종이는 준비물에 해당합니다.
- 3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4 딱지치기를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여 써 봅니다.

국어 활동

42쪽

1 중심 문장: ㉠ 뒷받침 문장: ㉡, ㉢, ㉣, ㉤

2 (1) ○

3 (1) 안 갔다 (2) 안 나서

4 (1) 안 (2) 앓고 (3) 앓았다면

- 1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가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2 문장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을 고릅니다.
- 3 뒤에 오는 말의 반대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안’으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 4 뒤에 오는 말의 반대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안’으로 쓰고 ‘아니하’의 준말인 경우는 ‘앓’으로 씁니다.

단원 마무리

43쪽

① 로봇

② 구슬

③ 한과

단원 평가

44~46쪽

1 ④

2 ㉠

3 두 가지

4 (2) ○

5 ㉠

6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 등

7 ④

8 (4) ○

9 전통 과자 /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 등

10 ①, ②, ④

11 (1) ㉠ (2) ㉡, ㉢, ㉣

12 강정

13 ④

14 ②

15 애벌레, 나방, 개구리, 카멜레온

16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등

17 ⑤

18 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19 ②

20 ④, ⑤

- 1 감시용 로봇, 해양 탐사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예로 들면서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했습니다.
- 2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는 글로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 3 이 글은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을 설명하는 내용, 장승의 얼굴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4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꾸고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여 씁니다.
- 5 ㉠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고, ㉡~㉣은 뒷받침 문장입니다.

보충 자료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면 좋은 점

-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6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첫 문장으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첫 문장임을 알고 첫 문장의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장승의 얼굴 모습은 장난꾸러기 얼굴도 있었습니다.
- 8 (1)~(3)의 문장은 우리나라의 명절마다 하는 놀이의 예를 말하고 있으므로 뒷받침 문장으로 알맞고, (4)가 중심 문장으로 알맞습니다.

- 9 한과는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 10 한과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11 약과가 무엇인지 말하는 첫 문장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입니다.
- 12 강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 13 엿기름은 엿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 14 엿이 무엇인지 말하는 ②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엿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는 다른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입니다.
- 15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인데 뒷받침 문장에서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동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동물들의 보호색」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뒷받침 문장	• 나뭇잎을 기어 다니는 애벌레는 초록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 나방은 나무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적을 속입니다. • 개구리도 사는 곳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대표 동물입니다.

- 16 ‘물고기’라는 말을 이용하여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 채점 기준**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가 중심 문장임을 알고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물고기’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7 ‘공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 18 ‘다양한 직업’이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에 알맞은 중심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 19 햄스터를 좋아하는 까닭이 뒷받침 문장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중심 문장으로 ②가 어울립니다.
- 20 문단의 뒷받침 문장을 쓸 때에는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쓰고, 중심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씁니다.

서술형 평가

47쪽

- 1 한 칸 뒤이다. / 한 칸 들어 쓴 위치이다. 등
- 2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등
- 3 (1)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을 묻힌 과자입니다.
(2) •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꿀과 술을 넣습니다.
• 그런 다음에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쳐서 기름하게 썰어 말린 뒤 기름에 튀깁니다.
• 깨, 잣가루, 콩가루와 같은 고물을 묻혀 먹습니다.
- 4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등
- 5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

- 1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여 씁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의 첫 글자의 위치는 한 칸 뒤입니다.

채점 기준 한 칸 뒤나 한 칸 들어 쓴 위치라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보고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첫 문장임을 알고 첫 문장의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씁니다.

채점 기준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첫 문장임을 알고 찾아 쓰고, 나머지 문장들을 뒷받침 문장으로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엿치기는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채점 기준 엿치기가 무엇인지 알고 가락엿을 부러뜨려, 구멍의 개수와 크기를 비교한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뒷받침 문장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을 만들어 씁니다. ‘공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생각그물에 있는 중심 내용이 빠져 있는 문단임을 알고 ‘공으로 하는 운동’을 넣어 중심 문장을 잘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알맞은 높임 표현

핵심 확인 문제

50쪽

- 1 높임 2 (1) ○ 3 -습니다
4 존중하는 5 높임

준비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알기

51쪽

- 1 (1) 높이기 (2) 공경
2 (1) 아버지 (2) 선생님 (3) 어머니
3 ② 4 ①, ②, ⑤

- 1 높임 표현의 뜻과 담긴 마음을 바르게 씁니다.
2 아버지께 말할 때, 선생님께 대해 말할 때,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 높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ㄴ에서는 듣는 사람이 아버지, ㄹ에서는 행동하는 사람이 선생님, ㅁ에서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 3 '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생으로 높임 표현이 아닙니다.
4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본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알기

52~53쪽

- 1 (1) 다녀왔습니다 (2) 좋겠습니다
2 ⑤
3 (1) 오시니 (2) 하시나요 4 -시-
5 ㉠ - ㉣ ㉤ - ㉡
6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나 '께'를
7 ⑤ 8 ㉢ 주무시다

- 1 대화 ㉠에서는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고, 대화 ㉣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높임의 대상입니다. 높임 표현인 '다녀왔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알맞습니다.

- 2 '-습니다'를 써서 문장을 끝맺는 방법으로 높임을 표현하였습니다.

- 3 대화 ㉡에서는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고, 대화 ㉢에서는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높임 표현인 '오시니', '하시나요'가 알맞습니다.

- 4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 방법으로 높임을 표현하였습니다.

- 5 대화 ㉡에서는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고, 대화 ㉣에서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높임 표현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가 알맞습니다.

- 6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웃어른(높임의 대상)에게는 '께서'나 '께'를 사용해 높임을 표현합니다.

채점 기준 높임의 대상에게 사용하는 '께서'나 '께'를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밥'이 아니라 '진지'가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입니다.

- 8 웃어른께 사용하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생각해 봅니다.

기본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54~56쪽

- 1 ①
2 ㉡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다. / 여자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해 화가 나실 것 같다.
3 ③
4 지난겨울에 찍은 제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도 한번 보시겠어요? 등
5 -님, -시- 6 ㉣
7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 스스로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담아 나누는 뜻이 담겨 있다. 등
8 ①, ④, ⑤ 9 대화 ㉡
10 (1) 좋아합니다 (2) 네, 주세요 (3) 드릴 말씀, 있어요, 있습니다
11 이예요,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다. 등
12 수지

진도
교재

1 여자아이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엎드린 채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하였습니다.

2 여자아이가 언어 예절을 지키고 있지 않아 할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충 자료 언어 예절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는 자신을 공경한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3 여자아이는 바르지 않은 자세를 하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자아이가 지켜야 할 언어 예절

자세	•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표현	•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4 여자아이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 봅니다.

채점 기준 여자아이의 말을 바른 높임 표현으로 잘 고쳐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며느리는 ‘-님’과 ‘-시-’ 자만 넣으면 높임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여 물건과 동물에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 ‘부모님’, ‘회원님’에 쓰인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해 줍니다.

6 물건이나 동물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조상님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높임말을 만든 까닭을 말하는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 담긴 뜻을 잘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9 대화 ㉠은 듣는 사람이 선생님과 친구들인 경우이고, 대화 ㉡는 어머니이고, 대화 ㉢는 선생님인 경우입니다.

10 듣는 사람이 웃어른이거나 친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11 대화 ㉠에서는 웃어른이 아닌 물건이 대상이므로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채점 기준 ‘이예요’를 쓰고,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2 할아버지께는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천
하기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

57~58쪽

1 (3) ○

2 예 높여서 말할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께서’를 넣어야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하셔’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1) 선생님께서 (2) 하셨어

4 (3) ○

5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등

6 ㉣

7 ㉠ 아주머니께서 댁에 계실까요?

㉡ 어머니께서 갖다드리래요.(갖다드리라고 하셨어요.)

㉢ 장반이 너무 예뻐요.

㉣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8 (1) ㉡ (2) ㉠

1 선생님은 웃어른이므로 ‘께서’를 넣어야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므로 ‘하셔’라고 해야 합니다.

2 선생님 뒤에 ‘께서’를 붙여야 하고, ‘하셔’라고 해야 되는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선생님이 웃어른이므로 ‘께서’와 ‘-시-’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높여서 말할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께서’와 ‘하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높여서 말할 대상이 아버지이므로 ‘께서’와 ‘-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5 높여서 말할 대상이 아버지이므로 ‘께서’와 ‘하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6 어머니께서 훈민이와 동생에게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좀 갖다드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높임의 대상에 주의하며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알맞은 높임 표현 사용하기

㉠	•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계실까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갓다드리래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	물건은 높이지 않으므로 ‘예뻐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아주머니 뒤에 ‘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요’나 ‘-습니다’를 써서 말을 끝맺어야 합니다.

8 알맞은 높임 표현을 들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알맞지 않은 높임 표현을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국어 활동 59~60쪽

1 (1) ① (2) ①, ④ (3) ②, ③ (4) ③, ④
2 ③ 3 높임말 4 ②
5 높임말을 사용하면 상대를 높일 수 있다. / 내가 높임말을 사용하면 나 자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등
6 (1) ② (2) ②

- 1 높임 표현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만들었는지 찾아봅시다.
- 2 범수는 엄마가 자신에게 높임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자꾸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 3 엄마는 범수가 웃어른께 높임말을 쓰지 않는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범수에게 높임말을 사용했습니다.
- 4 범수는 엄마에게 반말을 하는데 엄마는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자, 친구들이 엄마가 하녀냐고 놀렸습니다.
- 5 범수가 엄마에게 말을 낮추면 엄마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깨달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 6 받침 ‘ㅎ’이 뒤에 오는 ‘ㄱ’을 만나서 [안코]로 소리가 나고, 받침 ‘ㅎ’이 뒤에 오는 ‘ㅈ’을 만나서 [짜치]로 소리가 납니다.

정답 친해지기

받침 ‘ㅎ’은 뒤따르는 소리에 따라 발음을 달리해야 합니다. 받침 ‘ㅎ’이 ‘ㄱ’, ‘ㄷ’, ‘ㅈ’을 만나면 각각 [ㅋ], [ㅌ], [ㅊ]으로 발음됩니다.

단원 마무리 61쪽

1 웃어른 2 시 3 낱말
4 바른 5 물건

진도
교재

단원 평가 62~64쪽

1 (1) 진수 (2) 아버지 2 (2) ○
3 -습니다 4 (1) 선생님 (2) 어머니
5 ② 6 께서 7 ②, ⑤
8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릴 거야.
9 할머니 10 ①, ⑤
11 예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해. / 바른 자세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해.
12 ㉠
13 작은 것은 천 원이고 큰 것은 이천 원이에요. 등
14 ⑤ 15 ③ 16 ⑤
17 께서, 하섌어
18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를 갓다드리는 것 등
19 ③
20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니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으실 것이다. 등

- 1 대화 가에서는 동생인 진수가 듣고 있고, 대화 나에 서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 2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 3 문장의 끝부분에 ‘-습니다’를 써서 높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 ‘-습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맺습니다.
- 높임을 나타내는 ‘-사-’를 넣습니다.
-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나 ‘께’를 사용합니다.
-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합니다.

- 4 대화 ㉠에서는 선생님이고, 대화 ㉡에서는 어머니입니다.
- 5 ‘오시니?’, ‘하시나요?’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었습니다.
- 6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를 사용합니다.
- 7 ‘밥, 주다, 물어보다’는 친구나 동생에게 사용하고, ‘진지, 드리다, 여쭙어보다’는 웃어른께 사용합니다.
- 8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 ‘드리다’를 씁니다.
- 9 여자아이와 할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10 여자아이는 엷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 11 웃어른과 대화할 때의 바른 자세와 바른 표현을 알려 주는 말을 씁니다.

채점 기준 여자아이가 잘못된 점을 알고 바른 언어 예절을 알려 주는 말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며느리는 ‘-님’ 자만 붙이면 높임말이 되는 줄 알고 ㉠, ㉡에서도 ‘-님’을 붙이고 있습니다.
- 13 ‘작은 것, 큰 것’에 ‘-시-’를 붙여서 높였습니다.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14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 15 듣는 사람이 나보다 웃어른이거나 여러 명의 친구들인 경우이므로 ‘좋아합니다’를 씁니다.
- 16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줄여서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17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께서’를 붙이고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 18 어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를 갖다드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 19 아주머니를 높여야 하므로, ‘아주머니께서 댁에 계실까요?’가 가장 알맞습니다.
- 20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바른 높임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할지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 평가

65쪽

- 1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쓴다. / 행동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쓴다. /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쓴다. 등
- 2 높임의 대상에게 ‘께’를 사용했다. /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 ‘드릴게요’를 사용했다. 등
- 3 엷드린 자세로 말하고, 할머니께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할머니 대신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하고, 친구에게 사용하는 말로 대화했다. 등
- 4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등
- 5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 등

- 1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행동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채점 기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 뒤에 ‘께’를 사용하고,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께’를 사용했거나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 ‘드릴게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여자아이는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으므로 바른 자세로 할머니를 쳐다보며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잘못된 일을 잘 찾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신발은 물건이기 때문에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시-’를 넣지 않습니다.

채점 기준 물건인 신발을 높여서 사용한 상황임을 알고 알맞지 않은 까닭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아버지 뒤에 ‘께서’를 붙이고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시-’를 넣어 ‘하셨어’라고 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아버지를 높이는 말을 사용해 알맞은 높임 표현으로 고쳐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핵심 확인 문제

68쪽

- 1 ○ 2 축하 3 (1) ○ (2) ○
4 행동 5 받을 사람

준비

마음을 전한 경험 나누기

69쪽

- 1 (1) 축하하는 마음 (2) 위로하는 마음
(3) 고마운 마음 (4) 미안한 마음
2 (1) ② (2) ④ (3) ① (4) ③
3 (1) 예 내가 잘 모르는 수학 문제를 서연이가 가르쳐 주었다.
(2) 예 서연이에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절한 아이라고 말했다.
4 마음, 까닭

- 1 각 그림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2 각 그림의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마음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봅시다.
3 마음을 전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 한 말을 써 봅시다.
채점 기준 있었던 일과 그때 했던 마음을 전하는 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전할지 먼저 떠올려야 하고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까닭이 잘 드러나게 이야기합니다.

기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

70~71쪽

- 1 (1) ③ (2) ② (3) ①
2 가방을 들어 준 일 등 3 ③, ⑤
4 ① 5 ①, ⑤
6 많이 아쉬웠어요
7 ⑤ 8 ③, ④
9 예 나도 처음에는 한자 쓰기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한자왕이 된 적이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 1 그림에 나타난 상황을 잘 살펴보고 각 그림에 맞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2 민경이는 어제 가방을 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3 민경이는 나리에게 ‘너는 운동도 잘하고, 마음도 참 따뜻한 멋진 친구야.’라고 했습니다.
4 민경이는 나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며 ‘고마웠어, 걱정했는데, 정말 기뻐서, 많이 속상했어, 미안했어, 멋진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등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썼습니다.
5 정혁이는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고 할아버지 댁에 가면 반갑게 맞아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6 작년 할아버지 생신 때 찾아뵙지 못한 일에 대해 많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7 민재는 호준이가 한 달 동안이나 저녁마다 줄넘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8 민재는 호준이에게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많이 속상했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응원하고 있어’ 등의 말을 써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9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려 경험을 말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바꾸어 써 봅시다.

채점 기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적절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72~73쪽

- 1 ② 2 ③
3 민서 탓이라고 하시며 등
4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
5 속상함 등 6 ⑤
7 예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드릴 것이다. /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마를 해 드릴 것이다. /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께 드릴 것이다.
8 ㉠

진도
교재

- 1 자기 머리핀인데 민주가 꽃고 가서 화난 마음이 ㉠에 나타나 있습니다.
- 2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은 행동에서 민서의 서운하고 화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동생 민주가 민서의 머리핀을 꽃고 유치원에 가 버렸는데 어머니께서는 민서 탓을 하시며 동생 편을 드셨습니다.
- 4 민서는 머리핀 때문에 동생에게 화가 나고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짝이 새로 산 물감을 자랑하자 짜증이 난 것입니다.
- 5 책상에 엎드린 행동에서 민서가 물감을 가져오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6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출근하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셨습니다.
- 7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어머니께서 꾸중하셔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기 보다는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기본+실천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 익히고 편지 쓰기

74~75쪽

- 1 ㉠ 2 도시에서 빵 가게를 했다. 등
- 3 ㉡
- 4 예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었으니 리디아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소식일 것이다.
- 5 첫인사 6 ㉢ 7 ㉡, ㉢
- 8 (1) 마음 (2) 생각이나 느낌
- 9 (1) 예 친구 (2) 예 글짓기 상을 받은 일 (3) 예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 1 리디아는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2 도시에서 빵 가게를 하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됐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3 리디아는 일하는 틈틈이 빵 가게 옥상에 멋진 꽃밭을 가꾸었다고 했습니다.

- 4 집을 떠나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는 리디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지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예상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편지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6 리디아의 즐겁고 기쁜 마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 대신에 '하늘을 날 듯 신나다'가 어울립니다.
- 7 쓰임에 따라 '굉장한'과 뜻이 비슷한 낱말로 '근사한', '엄청난' 등이 있습니다.

보충 자료 한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기보다는 쓰임에 따라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8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씁니다.
- 9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씁니다.

국어 활동

76쪽

- 1 ㉢
- 2 엄마가 예쁜 옷을 만들어 주신 것 / 할머니께서 꽃씨를 챙겨 주신 것 등
- 3 ㉤
- 4 예 네가 우산을 씌워 주지 않았다면 책가방도 옷도 다 젖었을 거야. 너도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해. 정말 고마워.

- 1 리디아의 편지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 2 리디아는 엄마가 예쁜 옷을 만들어 주신 것과 할머니가 챙겨 주신 꽃씨에 대해 고맙다고 했습니다.
- 3 지수가 쓴 편지에는 전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 4 승현이가 우산을 씌워 준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씁니다.

단원 마무리

77쪽

- ① 미안 ② 화남 ③ 속상
④ 첫인사

단원 평가

78~80쪽

- 1 그림 ㉠ 2 (1) ③ (2) ④ (3) ② (4) ①
3 예 넘어져서 속상했지? /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4 손을 다친 글쓴이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 등
5 ② 6 ②, ④ 7 (1) ② (2) ①
8 위로하는 9 고마운 마음 등
10 ①, ④ 11 ⑤
12 출근하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셨다. 등
13 ④ 14 ①
15 리디아의 아빠가 취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등
16 ⑤ 17 ⑤ 18 ②
19 ④ 20 ⑤

- 1 그림 ㉠은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상황, 그림 ㉡는 친구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상황, 그림 ㉢는 짝이 책을 빌려주는 상황, 그림 ㉣는 친구의 그림에 물통을 엮지른 상황입니다.
2 그림 ㉠에서는 축하하는 마음을, 그림 ㉡에서는 위로하는 마음을, 그림 ㉢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그림 ㉣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3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를 위로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4 나리는 손을 다친 글쓴이의 가방을 들어 주었습니다.
5 나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6 ‘고마웠어, 정말 기뻐서’에서 글쓴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7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8 글쓴이는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동생에게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9 글쓴이는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10 어머니 말씀에 대꾸를 하지 않은 행동에서 화나고 서운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 동생이 자신의 머리핀을 가져갔는데 어머니께서 동생 편만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시자 ‘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채점 기준 어머니께서 물감을 가져다주셨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3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4 리디아의 편지에는 ‘받을 사람’ 다음에 들어갈 ‘첫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15 외삼촌께서는 리디아의 아빠가 취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채점 기준 리디아에게 리디아의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6 리디아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7 ‘엄청난’, ‘근사한’, ‘훌륭한’, ‘대단한’은 쓰임에 따라 ‘굉장한’과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하찮은’은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한’이라는 뜻입니다.

18 리디아에게 축하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안됐어’는 위로하는 마음을 전할 때의 말로 어울립니다.

19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게 쓰고, 편지의 형식에 맞게 씁니다.

20 나은이는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민지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은이는 민지에게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도
교재

서술형 평가

81쪽

1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출근하시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셔서 등

2 예 민서야, 나도 동생이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동생에게 화를 냈는데 동생이 우니까, 어머니께서 사이좋게 놀지 않는다고 꾸중하셔서 속상했단다. 그래도 어머니께 화를 낸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집에 가서 꼭 어머니께 사과드리렴.

3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등

4 예 아빠께서 취직을 하셨다니 정말 축하해.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계신 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내 일처럼 기뻐어.

아빠께서 오랫동안 취직을 못 하셔서 네가 외삼촌 댁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는 나도 마음이 아팠단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와 꽃 가꾸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그럼 안녕.

1 민서는 화가 난 마음에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물감을 주고 가셨습니다.

채점 기준 민서에게 있었던 일을 잘 파악하여 죄송한 마음이 든 까닭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민서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민서와 비슷한 경험과 그때의 마음을 떠올린 다음, 민서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민서에게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알려 주는 말을 적절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리디아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외삼촌 댁에 가서 지내다가 아빠가 취직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채점 기준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리디아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며 리디아에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리디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전하는 말을 넣어 편지를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핵심 확인 문제

84쪽

- | | | |
|-------|----------|-----|
| 1 메모 | 2 기억 | 3 ○ |
| 4 중요한 | 5 책 제목 등 | |

준비 메모했던 경험 나누기

85~86쪽

- 1 옛이야기 속 과학 지식을 조사하는 것 등
- 2 ②, ⑤
- 3 (1) 「홍부와 놀부」 (2) 체험활동 (3) 이야기 세상
- 4 메모 5 (1) ② (2) ③ (3) ①
- 6 녹음이나 메모를 한다. 등 7 ③
- 8 예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가져가야 할 물건을 적어 본 적이 있다.

- 1 그림 ①의 남자아이가 한 말에서 민견이네 모둠 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 2 민견이네 모둠이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3 민견이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내용만 썼습니다.
- 4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을 '메모'라고 합니다.

보충 자료 메모를 해 두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들고 보고 생각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그림 ㉠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상황, 그림 ㉡는 심부름을 갈 때 기억할 게 많은 상황, 그림 ㉢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6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하면 좋습니다.
- 7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면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가 필요합니다.
- 8 어떤 상황에서 메모를 했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메모했던 경험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 물에 사는 생물들은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떠다니는 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 문단 ③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채점 기준 물에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그래서’를 넣어 문장을 이을 수 있습니다.
- 4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천 책 소개하기

92쪽

- 1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
- 2 ①
- 3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 오래 전에 공룡이 발을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 4 ④
- 5 (1) 예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사』
 (2) 예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책 사랑이 유별났다. 책이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책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 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조선 시대의 책 사랑을 보고 우리도 책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1 윤지는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윤지는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3 두 번째 문단에서 책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습니다.
- 4 책을 읽은 시간과 장소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 5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과 소개할 내용을 씁니다.

국어 활동

93~94쪽

- 1 (1) 분류·정리·보존하기 (2)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2 ㉠ 3 ㉡ 4 술런
- 5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에는 한궁이 있습니다. 등
- 6 (1) ㉠ ○ (2) ㉡ ○
- 7 (1) 째따 (2) 알따 (3) 땸따 (4) 널따

- 1 도서관에서 하는 일과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2 ㉠ 문장이 문단 ㉠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 1980년대에 미국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하던 놀이에서 생겨난 운동입니다.
- 4 문단 ㉢의 첫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 5 ‘한궁’이라는 낱말을 넣어 문단 ㉣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씁니다.
- 6 ‘짧고, 얇게, 얇고, 넓지, 여덟’의 ‘ㅍ’은 [ㄹ]로 소리 내고, ‘뺨다, 뺨고’의 ‘ㅍ’은 [ㅂ]으로 소리 냅니다.
- 7 ‘ㅍ’이 [ㄹ]의 소리가 나는지, [ㅂ]의 소리가 나는지 주의합니다.

단원 마무리

95쪽

- 1 메모 2 간단 3 중요한
- 4 내용

단원 평가

96~98쪽

- 1 옛이야기 전시관 2 (1) ㉡ (2) ㉠
- 3 ㉠ 4 메모 5 ㉡
- 6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썼다. 등
- 7 수의사
- 8 ㉠, ㉣ 9 ㉢, ㉡
- 10 악기의 종류에 대해 썼다. 등 11 글 ㉣
- 12 ㉠ 13 ㉠ 14 그리고 등
- 15 ㉠ 16 ㉡
- 17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
- 18 (2) ○ 19 ㉠, ㉡
- 20 물에 대한 정보

- 1 옛이야기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 알기’,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 세상’ 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시며 옛이야기 전시관에 대해 안내하셨습니다.
- 2 옛이야기의 줄거리를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이야기 알기’이고, 옛이야기에 나오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6. 일이 일어난 까닭

핵심 확인 문제

102쪽

- 1 원인 2 결과 3 (2) ○
4 때문에 5 원인, 결과

준비

원인과 결과 알기

103~104쪽

- 1 쓰레기 2 ④, ⑤ 3 ②
4 ③ 5 쓰레기 정거장
6 ② 7 ④, ⑤
8 예 마을 골목이 더 깨끗해질 것이다. /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것이다.

- 쓰레기가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지저분하게 쌓여 있습니다.
- 쓰레기를 버릴 때 어두워지면 나가기가 무섭고,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 골목 입구에 ㉠과 같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어 다니기 불편하다고 했으므로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면 좋을 것입니다.
- 좁은 장소에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몹시 지저분하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쓰레기도 뒤죽박죽이라고 했습니다.
-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릴 수 있고 버스 정거장처럼 깨끗하고 환합니다.
- 쓰레기를 버릴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편리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쓰레기 정거장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편리하게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쓰레기 정거장이 생긴 뒤에 일어날 일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 알기

105~107쪽

- 1 야구공을 찾으려고 등 2 ③
3 ⑤ 4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등
5 ② 6 ③ 7 짹짹콩콩
8 예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게 된 원인(까닭)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종석
10 ⑤ 11 ㉠ → ㉡ → ㉢ → ㉣
12 까닭

- 야구공을 찾으려고 꽃밭에 들어갔던 승호는 장미꽃 속에서 야구공을 찾았고, 조심스럽게 아기 참새를 잡았습니다.
- 승호는 야구공을 찾아 던진 다음, 조심스럽게 참새를 잡았습니다.
- 승호가 잡은 참새를 놓아주었지만, 아기 참새는 길에서 짹짹콩콩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 승호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기 때문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습니다.
- 한 친구가 아기 참새를 교실에서 기르자고 말했고, 선생님은 그래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선생님은 아기 참새가 날 수가 없으니 잘 날 수 있을 때까지 교실에서 기르자고 하셨습니다.
- 아이들이 말한 이름 가운데에서 ‘짹짹콩콩’으로 부르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해야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호는 참새를 잡아서 선생님께 부탁드린 일을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게 된 원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좋은 점

-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교실에는 아기 참새가 걱정되어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 있었습니다.
- 원인과 결과를 이어 주는 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 5 '생파'는 '생일 파티'의 줄임 말입니다.
- 6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 말입니다.
- 7 줄임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면 대화를 제대로 이어 나갈 수 없고, 쉽고 고운 우리말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 8 사건의 흐름을 차례대로 나열해 봅니다.
- 9 '이 애'는 줄여서 '애', '저 애'는 줄여서 '재'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 10 '그 애'는 줄여서 '개'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단원 마무리

113쪽

- ① 원인 ② 결과 ③ 왜냐하면
- ④ 보라색

단원 평가

114~116쪽

- 1 ㉠, ㉡ 2 ㉤ 3 ㉤
- 4 (1) × 5 주하
- 6 (1) 원인 (2) 결과 7 ㉢
- 8 ㉠, ㉤ 9 ㉢ 10 ㉡
- 11 예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왜냐하면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 12 ㉡ 13 ㉤ 14 ㉢
- 15 ㉠ 16 (1) ㉡ (2) ㉠
- 17 ㉣, ㉤ 18 ㉤
- 19 예 보라색 새의 안내로 두 친구는 큰 문에 옴.
- 20 예 환상의 무지개 나라를 찾아서

- 1 날이 어두워지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무섭고,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 2 그림 ㉡에서 남자아이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3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 4 골목 입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 5 쓰레기 정거장이 생기면 마을 골목이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것입니다.
- 6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합니다.
- 7 승호와 친구들은 날지 못하는 아기 참새를 걱정하다가 선생님께 가져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8 승호는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하고 잘 날지 못하는 아기 참새를 안고 걱정하다가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습니다.
- 9 이어 주는 말 '때문에'가 들어가야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납니다.
- 10 선생님과 승호네 반 친구들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어서 교실에 온 것입니다.
- 11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승호가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어 저녁에 교실에 간 일을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에 따라 알맞게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결과를 먼저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 뒤에 원인을 말해도 됩니다.
- 13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울릴지 생각해 봅니다.
- 14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기억에 남는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슬펐던 일, 기뻐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15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 주는 말로 문장을 연결해야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납니다.
- 16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봅니다.
- 17 남자아子和 여자아이는 보라색 새를 만나고, 큰 문 뒤에서 나온 주황색 옷을 입은 수염이 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 18 아이들이 빨간색, 보라색 막대를 들고 있고 할아버지도 주황색 막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색깔의 막대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 그림 ①에서 보라색 새가 두 아이를 발견하였고, 그림 ②에서 아이들은 큰 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보라색 새가 두 아이를 발견한 뒤에 일어났을 결과를 그림 ②에 어울리게 상상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0 그림에서 일어났을 일을 생각하여 어울리는 제목을 써 봅니다.

시술형 평가 117쪽

1 몹시 지저분하고 다니기도 불편하다. 등

2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다. 등

3 승호는 날지 못하는 참새가 다칠까 봐 걱정됐기 때문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다. 등

4 예 아이들은 큰 문 뒤에서 나온 주황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모험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색깔 막대를 다 찾아내어 제 색깔을 모두 되찾은 무지개 나라에서 모두 즐겁게 지내게 되었다.

1 좁은 장소에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려서 몹시 지저분하고 다니기도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몹시 지저분하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쓰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채점 기준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하자 승호가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는 내용을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에 따라 알맞게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그림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상상하여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씁니다.

채점 기준 그림에 어울리는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상상하여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반갑다, 국어사전

핵심 확인 문제

120쪽

- | | | |
|--------|------|------|
| 1 국어사전 | 2 차례 | 3 가게 |
| 4 × | 5 먹다 | |

진도
교재

준비

국어사전에 대해 알기

121~122쪽

- | | | |
|--|--------|-----|
| 1 ④ | 2 이름 등 | 3 ④ |
| 4 ② | 5 ⑤ | |
| 6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우리말에 대한 유용한 내용이 실려 있다. 등 | | |
| 7 ② | | |

- 1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으려면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2 국어사전 앞표지에는 사전 이름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이라는 이름에 국어사전에 실는 내용이나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이름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 3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자음 차례대로 두었습니다.
- 4 국어사전에서 시작하는 쪽에는 해당하는 자음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5 국어사전에 낱말이 생겨난 시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 6 낱말과 낱말의 뜻 외에 국어사전 부록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우리말에 대한 유용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반’은 ‘반대말’이라는 뜻의 약호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국어사전에 있는 약호나 기호에 대해 알기

- 약호는 ‘본말’을 「본」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나타낸 부호입니다.
- 기호는 발음 표시를 []로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나 부호를 말합니다.

기본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알기
123~124 쪽

1 자음자 2 ④ 3 ②
4 ③ 5 (1) ㅈ (2) 모음자
6 가게 → 거미 → 하늘 → 학교 → 한국 → 한복
7 ④ 8 ③

- 1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 2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을 때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3 자음자 중 ‘ㄱ’이 국어사전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 4 ㉠에는 첫 자음자가 ‘ㅅ’인 낱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 5 ‘친’의 첫 자음자는 ‘ㅈ’이고, ‘구’는 ‘구’의 모음자입니다.
- 6 각 글자의 첫 자음자와 모음자, 받침 차례대로 비교하면 ‘가게, 거미, 하늘, 학교, 한국, 한복’의 차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7 낱말을 이루는 글자 각각의 낱자가 짜인 차례대로 찾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삶 - 삶 - 상’의 차례입니다.
- ② ‘가을 - 두부 - 마을’의 차례입니다.
- ③ ‘나비 - 라디오 - 사탕’의 차례입니다.
- ⑤ ‘고구마 - 고슴도치 - 고양이’의 차례입니다.

- 8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 차례대로 찾습니다.

기본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기
125~126 쪽

1 (1) 먹다, 웃다, 달리다, 일어서다 (2) 작다, 넓다, 많다, 높다 2 ③
3 (1) 은데, 고, 은, 아서 (2) 높다
4 묶다 5 ④ 6 숨
7 (1) 입 (2) 입다 (3) 얇 (4) 얇다
8 예 붙다, 자석에 못이 붙었습니다.

- 1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나누어 봅니다.

- 2 ㉠에는 ‘으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 3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높’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됩니다.
- 4 ‘묶고’와 ‘묶은’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묶’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듭니다.
- 5 여름에는 몸에 잘 붙지 않도록 까슬까슬한 옷감으로 한복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6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옷감 사이에 솜을 넣은 한복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 7 낱말이 형태가 바뀔 때에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듭니다.
- 8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든 다음,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붙다’를 쓰고, ‘맞달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붙다’를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글 읽기
127~128 쪽

1 눈으로 꽃을 보기도 하지만 꽃으로 요리를 만들어 음식으로 먹었다는 뜻이다. 등
2 ②, ③ 3 ④ 4 삼진날
5 ⑤ 6 ③
7 (1) 예 천연 (2) 예 원래 있었던 것 (3) 예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8 예 꽃으로 만든 음식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알고 싶다. / 천연 색소로 쓸 수 있는 자연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 1 ‘꽃을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겼습니다.’라는 말은 눈으로 꽃을 보기도 하지만 꽃으로 요리를 만들어 음식으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 2 삼진날이 되면 진달래화전과 진달래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 3 진달래뿐만 아니라 벚꽃, 배꽃, 매화로도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철쭉꽃은 진달래와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 4 앞뒤 내용이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삼진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 5 농약을 친 꽃에는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속이 나빠져서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 6 오미자, 복분자로는 빨간색 물을, 보라색 고구마로는 보라색 물을 들였습니다.
- 7 모르는 낱말의 앞뒤 내용을 통해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봅니다.

보충 자료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으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 낱말의 뜻을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8 꽃으로 만든 음식에 대한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먹을 수 있는 꽃 요리에 대한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나만의 국어사전 만들기 129쪽

- 1 ㉠ → ㉡ → ㉢ → ㉣ 2 ㉤
- 3 (1) 예 재희의 첫 번째 국어사전
(2) 예 표지 그림, 만든 사람, 만든 날짜
- 4 ㉥

- 1 국어사전에 실을 낱말을 정한 후 신는 차례대로 낱말을 정리하여 그 뜻을 찾고 예쁘게 꾸며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듭니다.
- 2 ‘그윽하다’의 첫 글자의 첫 자음자가 ‘ㄱ’이므로 가장 먼저 씁니다.

보충 자료 하윤이가 국어사전에 실은 낱말의 뜻 알아보기

- 그윽하다: 깊숙하여 아늑하고 고요하다.
- 누리: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지계: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 햇귀: 해가 처음 솟을 때의 빛
- 희나라: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

- 3 여러 가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4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확하게 씁니다.

진도
교재

국어 활동 130~131쪽

- 1 (1) 받다 (2) 솟다 (3) 낚아채다 (4) 뒤쫓다
- 2 낚아채다 → 뒤쫓다 → 받다 → 솟다
- 3 ㉢ 4 (1) ㅅ (2) ㅈ (3) ㄴ
- 5 (1) 재다 (2) 자, 저울 등의 도구로 길이, 너비, 높이, 무게 등을 알아보다. 등
- 6 옆면을 포장한다. 등
- 7 (1) 사귀었던 (2) 사귀어 (3) 바뀌었는데
- 8 (1) 뛰었다 (2) 활쫓았다 (3) 쉬었다가

- 1 각각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봅니다.
- 2 첫 글자의 첫 자음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3 지우개는 선물 상자를 포장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아닙니다.
- 4 ‘선’은 ‘ㅅ’, ‘ㄴ’, ‘ㄴ’의 차례대로 짜여 있습니다.
- 5 ‘재다’의 뜻을 찾아 씁니다.
- 6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차례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7 ‘사귀었던’, ‘사귀어’, ‘바뀌었는데’는 줄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 8 ‘뛰었다’, ‘활쫓았다’, ‘쉬었다가’는 줄여서 쓰지 않습니다.

단원 마무리 132~133쪽

- | | | |
|---------|-------|-------|
| 1 이름 | 2 자음 | 3 뜻 |
| 4 첫 자음자 | 5 움직임 | 6 기본형 |
| 7 먹다 | 8 이해 | |

단원 평가

134~136쪽

- 1 ③ 2 (1) ① (2) ②
 3 ④ 4 ⑤ 5 ②
 6 (1) ㄷ (2) | (3) ㄴ (4) ㄱ (5) ㅈ (6) 없음.
 7 가게 8 ①
 9 나비 → 라디오 → 사탕 10 ②, ⑤
 11 (1) 먹 (2) 었다 12 높다
 13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모두 국어사전에 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등 14 ㉠
 15 ② 16 (1) ② (2) ①
 17 ㉠ → ㉡ → ㉢
 18 (1) 낱아채다 (2) ② 19 ②
 20 (1)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등을 찾아냄. 등
 (2)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 만들어 냄. 등
 (3)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게 됨. 등
 (4)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함. 등

- 1 낱말의 뜻을 모를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어사전 앞표지에는 사전 이름이 있고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른 이름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살펴보면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자음 차례대로 두되, 색을 다르게 하거나 모양을 달리 해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낱말의 뜻풀이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싣기도 하지만 제시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는 발음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긴소리(장음)는 ‘:’ 부호로 나타냅니다.
 5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 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나무, 농사, 누룽지’의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는 ‘ㄴ’입니다.
 6 ‘친’과 ‘구’의 낱자가 짝인 차례에 맞게 씁니다.
 7 ‘가게’는 첫 글자의 모음자가 ‘ㅏ’이므로 첫 글자의 모음자가 ‘ㅏ’인 ‘거미’보다 먼저 씁니다.

- 8 첫 번째 글자에 받침이 없는 ‘하늘’과 ‘하마’ 가운데에서 두 번째 글자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ㄴ’인 ‘하늘’을 첫 자음자가 ‘ㅁ’인 ‘하마’보다 먼저 씁니다.
 9 첫 자음자를 살펴보면 ‘나비’는 ‘ㄴ’으로 시작하므로 ‘ㄹ’로 시작하는 ‘라디오’보다 먼저 싣고, ‘ㅌ’으로 시작하는 ‘사탕’을 가장 나중에 씁니다.
 10 ‘동생, 소금, 도서관’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이고, ‘먹다, 일어서다’는 형태가 바뀌는 낱말입니다.
 11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데, ‘먹’이 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 낱말이 형태가 바뀔 때에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듭니다.
 13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국어사전에 낱말의 기본형만 씁니다.

채점 기준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모두 국어사전에 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읽고’, ‘읽으니’의 기본형은 ‘읽다’입니다.
 15 형태가 바뀌지 않는 ‘뭉’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듭니다.
 16 기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몸의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죽옷이나 두꺼운 털옷을 입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몸에서 생기는 열을 내보내려고 얇고 성긴 옷을 입습니다.
 17 ㉠의 기본형인 ‘붙다’가 먼저 나오고, ㉡의 기본형인 ‘얹다’, ㉢의 기본형인 ‘입다’의 차례대로 나옵니다.
 18 ‘낱아채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뒤를 따라 쫓다.’는 ‘뒤쫓다’의 뜻입니다.
 ③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등을 가지다.’는 ‘받다’의 뜻입니다.

- 19 진달래는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뒤에 먹어야 합니다.
 20 각각의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발견’, ‘발명’, ‘읽다’, ‘잇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시술형 평가

137쪽

- 1 낱말의 발음, 낱말의 뜻, 낱말이 쓰인 예 따위의 정보가 들어 있다. 등
- 2 첫 번째 글자가 같으면 두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ㄱ'인 '한국'을 첫 자음자가 'ㅂ'인 '한복'보다 먼저 읽는다. 등
- 3 '먹다, 달리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고, '많다, 높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등
- 4 (1) 얇다 (2)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 등
- 5 예 여름에는 더워서 얇은 옷을 입는다.
- 6 (1) 꽃을 넣어 만든 떡 등
(2)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 등

- 1 국어사전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낱말의 발음, 낱말의 종류, 낱말의 뜻, 비슷한 말, 낱말이 쓰인 예 따위의 정보가 들어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글자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한국'을 '한복'보다 먼저 읽는다고 쓰고,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채점 기준 '먹다, 달리다'를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많다, 높다'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나누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얇고'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기본형으로 낱말의 뜻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1)에 '얇다'를 쓰고, (2)에 '얇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확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낱말의 뜻에 어울리게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얇다'를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화전'의 뜻을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1)에 '화전'의 뜻을 짐작하여 쓰고, (2)에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의견이 있어요

핵심 확인 문제

140쪽

- | | | |
|---------|---------|-----|
| 1 의견 | 2 말, 행동 | 3 ○ |
| 4 중심 문장 | 5 ㉠ | |

준비

의견의 뜻 알기

141~142쪽

- 1 감은 누구의 것인가 등
- 2 ㉠
- 3 그 감은 우리 것이네. 등
- 4 ㉡
- 5 오성의 팔이다 등
- 6 ㉢
- 7 (2) ○
- 8 예 하인이 빗자루로 힘들게 감나무 잎을 쓸었다면 하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 1 오성과 옆집 하인은 감이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2 옆집 하인은 감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온 가지에 달렸기 때문에 자기네 감이라고 하였습니다.
- 3 오성은 자기네 집에서 감나무를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감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4 오성과 한음은 오성의 옆집에 사는 권 판서 덕으로 갔습니다.
- 5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권 판서 대감은 오성의 팔이라고 했습니다.
- 6 팔이 어디에 있든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내 것인 것처럼 감나무의 가지도 감나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 7 권 판서 대감은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감나무의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감이 오성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 8 옆집 하인과 오성, 권 판서 대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떠올려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씁니다.

채점 기준 옆집 하인과 오성, 권 판서 대감의 의견과 그 까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진도
교재

기본 글을 읽고 인물의 의견과 그 까닭 알기 143~145쪽

- 1 ② 2 ① 3 ④
4 가위 (색시) 5 ⑤ 6 ③
7 실이 있어야 바늘이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등 8 ④
9 (1) ② (2) ① 10 ④ 11 소윤
12 예 연필, 연필이 없으면 공책에 배운 것을 쓸 수가 없어서 기억하기 힘들어진다.

- 1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입니다.
2 아씨가 낮잠을 잘 때 일곱 동무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3 자 부인이 한 말을 살펴보면 자 부인의 의견에 대한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4 가위 색시가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6 바늘 각시는 자기가 이 솔기 저 솔기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7 홍실 각시는 바늘이 옷감을 꿰매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하므로 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기준 실이 있어야 바늘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골무 할미는 아씨의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울퉁불퉁 바느질한 것을 살피고 다듬는 것은 인두, 구겨지고 접힌 곳을 펴 주는 것은 다리미입니다.
10 일곱 동무는 바느질에서 서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랑을 하며 다투었습니다.
11 '가위'는 옷감을 잘라야 바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2 자신이 사용하는 학용품들을 떠올려 보고, 그 학용품이 되어 자신이 왜 중요한지를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학用品을 한 가지 떠올린 후 그 학用品이 되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 146~147쪽

- 1 ⑤ 2 병든다 등 3 ⑤
4 ㉠, ㉡, ㉢ 5 ⑤ 6 우리 모두 등
7 윤서
8 예 음식을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다.

- 1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가꾸어야 합니다.
2 일회용품은 지구를 병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고 말하려고 지은 제목일 것입니다.
4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은 ㉠, ㉡, ㉢입니다.
5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려면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7 우리 모두 일회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8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의견을 파악하며 글 읽기 148~149쪽

- 1 습관 2 ⑤ 3 ②, ⑤
4 (1)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릅니다.
5 ② 6 ㉡ 7 (3) ○
8 예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 고마움을 표현할수록 나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 1 글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짐작해 봅니다.

보충 자료 '좋은 습관을 기르자'라고 제목을 지은 까닭 짐작하기 예

사람들에게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 주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자고 말하려고, 나쁜 습관을 기르지 말자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3 오성은 자기 집에서 감나무를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자기네 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4 감나무는 자기네 집에서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감은 자기네 것이라는 오성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오성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6 '내가 나서서 옷감을 잘라야 일이 된다고요.'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7 자신이 있어야 꿰매고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늘 각시가 바느질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든 까닭입니다.

8 실이 있어야 바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9 골무 할미는 아씨의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들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0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1 앵무새는 먼저 말한 다람쥐가 도토리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12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 일회용품에는 비닐봉지, 일회용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따위가 있습니다.

14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15 일회용 컵 재료가 되는 나무나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을 더 파괴할 수 있습니다.

16 일회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7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을 까닭으로 들어야 합니다. 책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 좋은 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18 약속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9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글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입니다.

20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과 그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 평가

157쪽

1 감은 오성의 것이다. 등

2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 등

3 들쭉날쭉 울퉁불퉁 바느질한 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다듬어 제 모양을 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 등

4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니다. 등

5 계단에서는 뛰지 않아요. 등

1 권 판서 대감은 감나무가 오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감은 오성의 것이라고 바르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권 판서 대감은 나무의 뿌리가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감은 오성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자신이 들쭉날쭉 울퉁불퉁한 구석을 살피 모양을 잡아 주기 때문에 바느질에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울퉁불퉁한 구석을 살피 모양을 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글 제목을 살펴보고 글쓴이의 의견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니다.' 등의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채점 기준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알맞은 의견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어떤 내용일까

핵심 확인 문제

160쪽

- 1 ㉠ 2 (2) ×
3 (1) 단서 (2) 경험 4 짐작

준비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 나누기

161쪽

- 1 ㉡ 2 (1) ㉡ (2) ㉠
3 예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낱말의 뜻을 몰라 뉴스
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4 ㉣

- 1 ○○ 폭포는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이므로 수영이나 물놀이를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
습니다.
2 ‘수심’은 ‘강이나 바다, 호수 따위의 물의 깊이’를 뜻하
고, ‘발생’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뜻합니
다.
3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신문을 볼 때, 어려운 책을
볼 때 등 일상생활에서 낱말의 뜻을 몰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4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어른께 여쭙
어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봅니다. 또,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앞뒤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162쪽

- 1 다람쥐 등 2 ㉠
3 짧아지게 / 작아지게 등 4 ㉢

- 1 다람쥐가 쉬지 않고 딱딱한 것을 씹아 대는 까닭, 다
람쥐가 좋아하는 먹이,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먹이를
많이 먹어 두는 까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가을이 되면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려고 먹이를 많이
먹어 둔다고 했습니다.

- 3 ‘뿔게’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 ‘계
속해서 자라나지 않도록’, ‘계속 길어지지 않도록’ 등
이라는 뜻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뿔게’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짐 작한 뜻과 비교해 보기

- ‘뿔게’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뿔게’의 기본형인
‘뿔다’를 찾아야 합니다.
- ‘뿔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뿔다: 갈리거나 오래
쓰여서 어떤 물건이 낡아지거나, 그 물건의 길이, 두
께, 크기 등이 줄어듦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신이 짐작한 뜻과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이 비슷하
지 비교해 봅니다.

- 4 낱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고 뜻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기본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 읽기

163~164쪽

- 1 (까만색) 프린들 2 ㉣
3 볼펜 4 ㉡, ㉤
5 (1) 볼펜 (2) 프린들 6 ㉢
7 예 나는 앞으로 절대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
서에 서명했다. 8 ㉤
9 예 학교의 아이들이 모두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 1 닉은 페니 팬트리 가게에 가서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
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2 아주머니는 ‘프린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닉에게 다시
물어보려고 닉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3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고, 닉은 아주머니에
게 45센트를 건네주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4 ‘프린들’의 앞뒤 내용 가운데에서 그 뜻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5 닉을 포함한 여섯 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볼펜을 ‘프
린들’이라고 부르며 사러 왔기 때문입니다.
6 ‘어엿한’은 ‘분명한’, ‘확실한’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서약서’는 ‘맹세하고 약속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를
뜻합니다. 그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맹세하고 약속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를 뜻
하는 ‘서약서’를 넣어 한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여섯 명의 아이들 모두는 영원히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쓸 것이라고 써 있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 9 닉을 비롯한 여섯 명의 비밀 요원들은 다른 사람들도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린들이라는 말을 학교의 아이들이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나 사람들이 프린들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사전에도 나오게 된다는 내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165~166쪽

- 1 ② 2 (1) ② (2) ①
3 달팽이 전문 사냥꾼 4 어두운 밤 등
5 ①, ⑤ 6 개똥벌레
7 ㉠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
러워졌기 때문이다.

- 1 반딧불이는 소리를 내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 2 어른이 된 반딧불이는 이슬을 먹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 3 반딧불이 애벌레는 달팽이 전문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먹성이 대단하다고 하였습니다.
- 4 글에서 찾은 단서와 빛은 어두운 밤에 잘 보인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반딧불이를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을 써 봅니다.
- 5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 6 반딧불이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개똥벌레는 경기도 지역에서 반딧불이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 7 글에서 찾은 단서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 가는 까닭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 러워지는 등 자연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 읽기

167~169쪽

- 1 ① 2 지리산팔랑나비
3 ㉠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플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한다.
4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시대 등
5 ③ 6 ④ 7 ㉠
8 (3) × 9 영국왕립도서관
10 ②, ⑤

- 1 석주명이 나비를 채집하려고 지리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 2 석주명은 어렵게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한 나비에게 ‘지리산팔랑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3 글에서 찾은 단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나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몸을 다쳐 가며 나비를 잡았던 석주명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석주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살았습니다.
- 5 석주명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이기도 했습니다.
- 6 석주명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스물한 살 때, 일본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나비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7 석주명은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나비만을 생각하며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외국 나비를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8 석주명은 영국왕립아시아학회에서 책을 써 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잘못 쓴 부분도 모두 찾아 고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 9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을 완성하여 영국왕립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 10 석주명은 나비 75만여 마리를 모았고, 일본어로 된 나비 이름을 우리말 이름으로 바꾸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어두웠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흥륭함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 6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보거나 그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봅니다.
- 7 ‘똥다’는 ‘갈리거나 오래 쓰여서 어떤 물건이 낡아지거나, 그 물건의 길이, 두께, 크기 등이 줄어듦’이라는 뜻입니다.
- 8 닉은 볼펜을 가리키며 ‘프린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프린들’의 앞뒤 내용 가운데에서 그 뜻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

- 닉은 아주머니 뒤쪽 선반에 있는 볼펜을 가리켰다.
-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다.
- 자넷이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볼펜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다.
-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 9 ‘어엿한’은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 10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의 뜻을 가진 ‘어엿한’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을 뜻하는 ‘어엿한’을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암수가 서로 짝을 찾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입니다.
- 12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낸다는 단서를 통해 어두운 밤에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3 빛은 밤에 잘 보이므로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모습을 보려면 어두운 밤에 관찰해야 합니다.
- 14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5 털보가 미야를 구해 줬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봅니다.
- 16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를 보자 석주명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 17 석주명은 처음 보는 나비를 찾으려고 풀숲도 헤쳐 보고 나뭇가지도 흔들며 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갓이 긁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 18 석주명은 나비를 좋아하고 특히 새로운 나비를 찾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몸을 다쳐 가며 나비를 잡았습니다.

- 19 ‘확보’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20 안내문의 내용을 단서로 지진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면 위험한 까닭을 짐작해 봅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호스나 자동 물뿌리개의 물이 승강기의 전기와 만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지진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면 위험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 평가

177쪽

- 1 (1) 약속, 계약서 등
(2)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 등
- 2 맹세하고 약속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 등
- 3 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 책임감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
- 4 예 책임감이 느껴졌을 것 같다.

- 1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서약서’의 뜻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1)에 ‘서약서’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쓰고, (2)에 ‘서약서’의 뜻을 짐작하여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국어사전에서 ‘서약서’의 뜻을 찾아보고 자신이 짐작한 뜻과 비교해 봅니다.

채점 기준 ‘서약서’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바르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중요한 일을 하게 된 석주명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영국왕립아시아학회에서 책을 써 달라는 편지를 받은 석주명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글에서 찾은 단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석주명의 마음을 짐작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거나 책임감이 느껴졌을 것이라거나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잘못 쓴 부분도 모두 찾아 고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핵심

확인 문제

180쪽

1 소개

2 ○

3 ㉠

4 역할

준비

재미있게 읽었거나 감동받은 책 소개하기

181쪽

- 1 ㉠ 2 ㉡, ㉢ 3 ㉢
4 (1) 예 『내 동생 싸게 팔아요』
(2) 예 이 책을 읽고 동생을 시장에 팔려고 한 주
인공의 생각이 무척 우스웠다.

- 1 초희는 『월월 간다』에서 농부가 황새를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장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고 했습니다.
- 2 사람마다 생각과 경험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 3 책을 소개할 때 줄거리, 소개하는 까닭, 재미를 느낀 부분이나 감동받은 부분 등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 4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과 재미를 느낀 내용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1)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제목을 쓰고, (2)에 재미를 느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분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시 읽기

182~183쪽

- 1 ㉔ 2 예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것이
느껴져서 우산을 더 기울여 주고 싶었다.
- 3 ㉒ 4 ㉑
- 5 (1) ㉑ (2) ㉔ (3) ㉒ (4) ㉓
- 6 행복 등 7 (1) ○ 8 지민

- 1 비 오는 날에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나란히 길을 걷는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 2 인물이 한 행동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친구가 어깨를 우산 밖으로 더 내밀 때 어떤 마음에서 친구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여 주었는지를 알맞게 짐작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었던 일과 거리가 먼 것을 찾습니다.
- 4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은 것을 찾습니다.
- 5 하루 종일 말뚝구리는 말뚝을 굴리게, 베짖이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달팽이는 느릅나무 앞에서 꿈을 꾸게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 6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한 것입니다.
- 7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말하였습니다.
- 8 말뚝구리는 말뚝을 굴리는 것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רפ"ר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184~188쪽

- 1 ㉔ 2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 3 ㉕
- 4 ㉑ 5 (1) ○ 6 ㉕
- 7 고맙다. 등 8 수현, 소미 9 ㉕
- 10 ㉓, ㉕ 11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등
- 12 ㉓ 13 ㉔, ㉕ 14 ㉔
- 15 선생님은 만복이가 요즘 아주 착해졌다고 생각
하셨고, 초연이는 만복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등
- 16 ㉔ 17 ㉕ 18 ㉔, ㉕
- 19 예 이야기를 읽고 나니 툭하면 싸우는 형이 떠
오른다. 속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버릇없이 굴게
되고 형과 싸우게 된다.
- 20 (1) 예 달콤한 꿀떡 (2) 예 달콤한 꿀떡을 먹으
면 달콤하고 예쁜 말이 술술 나오게 된다.

- 1 만복이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욕쟁이, 깡패, 심술쟁이로 이름났다고 했습니다. 만복이가 떡을 잘 만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2 만복이는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을 먹고 온종일 나쁜 말을 안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진도
교재

- 3 만복이는 무지개떡을 먹자 저절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몽실몽실 떠올랐습니다.
 - 4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을 보면 만복이도 즐거울 것입니다.
 - 5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 6 만복이는 배고파하는 강아지의 생각을 듣고, 엄마가 간식으로 싸 준 소시지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 7 강아지는 소시지빵이 맛있고, 만복이가 정말 고마운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8 '키득키득'은 '참다못하여 입 속에서 자꾸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나 그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 9 동환이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알자 만복이는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 10 만복이는 종호와 지현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과 교실 뒤에 걸려 있는 거울을 깨뜨린 범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 11 은지는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말도 잘 안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 12 은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만복이는 은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 13 선생님은 평소처럼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를 입고 온 것과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화장도 이상한 것 같아 고민했습니다.
 - 14 만복이가 선생님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리고, 얼굴도 오늘 더 예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15 선생님은 만복이가 요즘 아주 착해졌다고 생각하였고, 초연이는 요즘 만복이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 채점 기준** 만복이에 대한 선생님과 초연이의 생각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6 초연이의 마음을 안 만복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 17 쥐고 있던 주먹을 푼 만복이의 행동을 통해 만복이를 때린 것을 미안해하는 장군이를 용서하고 싶은 만복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 18 이제 만복이에게는 신기한 떡이 필요 없어졌고, 장군이가 착한 아이가 될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19 만복이와 장군이 등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만복이네 떡집」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예**

- 친구를 도와주고 기분이 좋았던 일
-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일
- 친구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한 뒤에 후회했던 일

- 20 신기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떡의 이름을 지어 쓰고,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상상해 씁니다.

기본

만화 영화를 보고 재미와 감동 표현하기

189쪽

- 1 ②, ③, ⑤ 2 ②
 3 (1) 미안함 등 (2) 기쁨 등 4 **예** 「강아지 똥」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

- 1 강아지 똥은 참새, 흙덩이, 민들레 등을 만났습니다.
- 2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운 것에서 사랑, 행복, 즐거움, 기쁨, 희생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3 자신을 위해 거름이 되어 달라고 하는 민들레는 강아지 똥에게 미안할 것이고,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강아지 똥은 기쁠 것입니다.
- 4 「강아지 똥」에서 느낀 재미와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써 봅니다.

실천

우리 반 독서 잔치 열기

190쪽

- 1 독서 잔치 2 ③ 3 (2) ○
 4 ⑤

- 1 덕무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 2 종이에 시를 쓰고 남은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린 후 작품을 교실에 전시하고 감상합니다.



- 3 친구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의 방법입니다.
- 4 독서 잔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먼저 활동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 준비물, 참가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활동 차례를 정해야 합니다.

국어 활동

191~193쪽

- 1 부끄럽다. 등 2 (1) ② (2) ① (3) ③
3 ② 4 ② 5 아기별
6 민서 7 ⑤ 8 (1) ② (2) ①
9 예 아기별이 바위나리가 걱정되어 울던 장면이 감동적이다. 바위나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아기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10 (1) 돼서 (2) 뻘뻘
11 (1) 돼 (2) 잘돼야 (3) 뻘뻘

- 1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동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각각 어떤 방법으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시를 읽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 3 바위나리는 파란 바다와 흰 모래벌판 사이에 피어난 오색 꽃입니다.
- 4 바위나리는 친구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 5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이 바위나리를 만났습니다.
- 6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 7 바위나리는 아기별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 8 ㉠에서는 화를 내는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아기별의 마음, ㉡에서는 밤마다 울어 빛을 잃은 아기별에게 화가 난 임금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9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감동을 느낀 장면을 써 봅니다.
- 10 ‘니’와 ‘너’가 만나서 줄어들면 ‘네’로 써야 합니다.
- 11 ‘되어’는 ‘돼’, ‘잘되어야’는 ‘잘돼야’, ‘되었다’는 ‘됐다’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

194~195쪽

- | | | |
|------|------|-------|
| 1 장면 | 2 우산 | 3 말 |
| 4 경험 | 5 행동 | 6 민들레 |
| 7 인물 | | |

진도
교재

단원 평가

196~198쪽

- 1 ㉠ 2 ④, ⑤
3 비 오는 날,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 등
4 ②
5 예 미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눈치채고 친구가 우산을 기울여 주는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6 (3) ○ 7 ⑤ 8 ①
9 예 부끄러워하는 동환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다. 10 ⑤
11 만복이는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어.
12 ⑤ 13 예 장군이의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거든.
14 경험 15 ⑤ 16 (1) ㉠ (2) ㉡
17 ㉢ 18 ⑤ 19 (1) ○
20 유라

- 1 지은이의 생김새를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친구들이 소개한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며 그때의 재미나 감동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 3 비 오는 날, 길에서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있었던 일과 그때 들었던 마음을 나타낸 시입니다.
- 4 시의 표현에서 재미를 느끼고 시에 담긴 내용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은이의 다른 작품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는 방법

-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봅니다.
- 시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 시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을 떠올려 봅니다.

- 5 이 시는 서로를 배려하려는 친구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줍니다. 자신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비 오는 날, 친구와 하나의 우산을 쓰고 가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감동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시에 나오는 동주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았습니다.
- 7 만복이는 동환이를 방귀쟁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 8 동환이는 방귀 핀 것을 만복이가 눈치 채고 소문내고 다닐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 9 만복이는 부끄러워하는 동환이의 마음을 알자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채점 기준 만복이가 동환이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만복이는 미안해하는 장군이의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 11 화가 나서 꼬옥 쥐었던 주먹을 푼 만복이의 행동에서 장군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2 미안해하는 장군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만복이는 장군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 13 장군이의 마음을 알고 만복이가 장군이를 용서하는 내용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봅니다.
- 14 바위나리가 아기별을 보고 기뻐하는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 15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만났습니다.
- 16 강아지 똥이 꽃이 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마음,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게 거름이 되어 달라고 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7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민들레를 꼭 껴안고, 그 덕분에 민들레가 노란 꽃을 피운 장면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 18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글로 써 보거나 친구에게 소개하며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9 책 속 인물 초청하기 활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 20 지후는 친구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 민주는 책을 읽고 문제 알아맞히기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서술형 평가

199쪽

- 1 예 어머니께 「반쪽이」 책을 소개해 드린 일이 있다.
- 2 예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는 베짦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 3 예 하루 종일 말뚝구리는 말뚝을 굴리게 그냥 놔두라는 부분이 재미있었다. 말뚝구리가 즐겁게 말뚝을 굴리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 4 예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복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 “선생님은 바지를 입는 것도 예쁘지만,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려요. 얼굴도 오늘 더 예뻐 보여요.”
- 5 예 만복이가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 1 읽은 책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 책을 소개했는지, 누구에게 책을 소개받았는지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에게 책을 소개받거나 소개해 본 경험을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말뚝구리, 베짦이, 사과나무, 달팽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말뚝구리, 베짦이, 사과나무, 달팽이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느낀 재미나 감동을 그 까닭과 함께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재미있는 표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 등을 찾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만복이가 한 행동, 만복이와 비슷한 경험,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 등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글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알맞게 찾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만복이는 외로워하는 은지를 도와주려고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선생님을 칭찬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만복이가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모습 등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 재미가 톡톡

단원 평가 1회

2~3쪽

- 1 ④ 2 감각적 표현 3 ⑤
 4 유주, 미영 5 (1) ① (2) ② 6 ③
 7 ②
 8 예 이대로 마을을 영영 떠나게 될까 봐 두렵고 슬
 폼습니다.
 9 요요요 / 요요요요 10 ③

- 개나리가 피는 소리를 “푹!”, 진달래가 피는 소리를 ‘팡!’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사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 소나기가 오는 소리를 잘 익은 콩이 쏟아지는 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2연에서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어 읽으면 비(소나기)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집니다.
 - 샘물이 솟아나는 모양을 ‘송송송’, 샘물이 고여 넘쳐흐를 때의 소리를 ‘줄줄줄’이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우리(갈매기)’는 ‘바삭바삭’을 먹고 싶어서 ‘바삭바삭’을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 ㉠에서는 귀로 들은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멋쟁이가 되어 이야기 속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써 봅니다.
- 채점 기준** 멋쟁이의 입장이 되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속 상황에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강아지를 부르듯이 ‘요요요 / 요요요요’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 강아지풀이 만져지는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낭송해 봅니다.

단원 평가 2회

4~5쪽

- 1 ④, ⑤ 2 ③ 3 ⑤
 4 ㉠ 5 ⑤ 6 ①
 7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놀라서 등
 8 예 장승 친구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멋쟁이를 구
 했다는 점 때문에 더 기뻐할 것 같다.
 9 바동바동 10 ⑤

- 바다나 파도를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찾습니다.
 - 말하는 이는 학교에도 못 가고 이틀째 앓아누워 있습니다.
 -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 튀기는 소리가 방 안에 누워 있는 말하는 이의 귀에까지 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은 코로 맡은 냄새를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 귀로 들은 소리를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마치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맛보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 도둑들은 용기와 멋쟁이를 트럭에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장승 친구들은 멋쟁이를 구하기 위해 도둑들을 놀래 주기로 하였습니다.
 - 도둑들은 도깨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승 친구들은 도둑들을 물리치고 멋쟁이를 구해 냈습니다.
 - 이야기 속 상황, 일어난 일,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해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씁니다.
- 채점 기준** 멋쟁이가 도둑들에게 잡혀간 상황에서 장승 친구들이 도둑들을 물리친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연에 ‘뭉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 온몸을 바동바동’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동생이 폐를 쓰면서 몸을 비트는 모습을 ‘바동바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폐를 쓰며 우는 동생을 보다가 아기 고래를 발견한 것처럼 신기하고 놀란 느낌이 잘 드러나게 뒷부분을 올려서 낭송합니다.

서술형 평가

6쪽

- 1 예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진다.
- 2 예 빗방울을 콩이라고 표현한 게 재미있다. / 소나기가 그치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높고 파란 하늘을 보았던 경험이 떠오른다.
- 3 예 "뿌우우우웅.", 배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해 생생하다. / 비릿한 냄새, 부뚜막에서 나는 냄새를 표현해 생생하다.
- 4 예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장면이 재미있다.
- 5 예 강아지를 부르는 것처럼 낭송한다.

- 1 '또로록'은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또로록'을 넣었을 때 더 생생하고 실감 난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보충 자료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 2 시에서 재미있게 느껴진 부분, 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시의 내용과 표현을 잘 이해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단순히 시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경우	2점

- 3 귀로 들리는 소리나 코로 맡는 냄새나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나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생생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고 그 표현의 느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뿌우우우웅"이나 '비릿한 냄새' 등의 표현을 찾아 쓰고 그 느낌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표현을 찾아 쓰지만 하고 느낌을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 4 장승 친구들은 밤이 되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이야기 속 장면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단순히 글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경우	2점

- 5 '요요요 / 요요요요'는 강아지를 부를 때 내는 소리이므로,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려 강아지를 부르듯이 낭송하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점수
소리가 들리듯이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인 것을 알고 강아지를 부르는 것처럼 낭송한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7쪽

- 1 (1) 예 풀숲을 걷다가 강아지풀을 보았다.
(2) 예 강아지풀이 마치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진 강아지 같아서 정답게 부르면 진짜 강아지처럼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2 (1) 예 요요요
요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2) 예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사랑사랑
- 3 예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간질였다. / 산들산들 바람 따라 꽃들이 춤을 춘다. / 알록달록 꽃들이 노래를 한다.

- 1 시에서 말하는 이는 풀숲을 걷다가 강아지풀을 보고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진 귀여운 강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강아지풀을 보고 있거나 만진다는 내용으로 쓰고 (2)에 강아지를 떠올렸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2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와 강아지풀의 복슬복슬한 느낌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요요요 / 요요요요'가 들어가게 쓰고 (2)에 '솜털같이 복슬복슬한'이 들어가게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3 꽃을 만질 때의 느낌, 꽃의 냄새를 맡은 느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느낌 등을 실감 나게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감각적 표현으로 꽃에 대해 표현한 경우	10점

2. 문단의 짜임

단원 평가 1회

8~9쪽

- 1 ㉔ 2 ㉕ 3 두 가지
4 ㉑ 5 ㉒, ㉓ 6 ㉔
7 ㉕
8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9 ㉑
10 예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딱지치기입니다. 딱지치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두 명입니다. 딱지치기를 할 때의 준비물은 딱지를 접을 수 있는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입니다. 그리고 딱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종이 두 개를 엇갈리게 접어 네모 모양으로 만든 뒤 바닥에 있는 상대의 딱지를 쳐서 넘기는 것입니다.

- 1 감시용 로봇, 해양 탐사 로봇, 의료용 로봇의 예를 들어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첫 문장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 3 장승의 구실에 대한 내용과 장승의 얼굴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4 ㉑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고, ㉒, ㉓, ㉔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㉕은 두 번째 문단의 뒷받침 문장입니다.
- 5 ㉑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㉒과 ㉓은 뒷받침 문장입니다.
- 6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약과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떠서 많이 약과를 만듭니다.
- 7 ㉑과 ㉓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 8 첫 문장이 문단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입니다.
- 9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라는 중심 문장에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나오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으로 어울립니다.

- 10 완성된 글을 살펴보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 문단을 썼는지 점검합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대한 설명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으로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평가
교재

단원 평가 2회

10~11쪽

- 1 ㉑ 2 ㉓
3 예 줄을 바꾼 다음에 한 칸 들어 시작했다.
4 ㉑
5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6 (1) 옛 (2) 강정 7 ㉑
8 (1) ○ 9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10 민지

- 1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2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 3 각 문단에서 첫 문장의 첫 글자는 한 칸 들어 쓴 위치입니다.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바꾸면 문단 구분을 하기 쉬워집니다.

채점 기준 줄을 바꾼 다음에 한 칸 들어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문단 사이의 특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뒷받침 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가 중심 문장으로 알맞습니다.
- 5 첫 문장이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입니다.
- 6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강정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7 ㉑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 8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면서, 농구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습니다.
- 9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 10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씁니다.

서술형 평가

12쪽

- (1)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2)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 예 문단 구분을 잘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 옛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등
- 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 각 문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 쓰고, (2)에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 쓴 경우	5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3점

- 다음 문단을 시작할 때 줄을 바꾸지 않으면 문단 구분이 잘되지 않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 구분을 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5점

- 우리나라에서 명절마다 하는 놀이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중심 문장이 늘 문단 첫머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임을 알고, 그대로 잘 찾아 쓴 경우	5점

- 엿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단으로 첫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임을 알고, 그대로 잘 찾아 쓴 경우	5점

- 엿치기는 가락엿 속의 구멍이 더 많고 큰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에 나타난 엿치기에 대한 내용을 잘 찾아 쓴 경우	5점
엿치기에 대한 내용을 썼으나 다소 내용이 빠진 경우	2점

-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 문장으로 삼고, 뒷받침 문장의 내용이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도록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다양한 직업이 들어가게 중심 문장을 쓰고 경찰관, 선생님, 요리사가 들어가게 뒷받침 문장을 쓴 경우	5점
한 문단으로 글을 썼으나 다소 내용이 부족한 경우	2점

수행 평가

13쪽

- (1) 뒷받침 (2) 중심 (3) 뒷받침 (4) 뒷받침
- ㉠ 예 공부 시간에 공부하기
㉡ 예 체육 시간에 운동하기
㉢ 예 점심시간에 급식 먹기
- 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부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공부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에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는 급식을 먹습니다. 매일 바뀌는 급식 메뉴가 참 맛있습니다.

-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과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2)에 '중심'이라고 쓰고, (1), (3), (4)에 '뒷받침'이라고 쓴 경우	10점
(1)~(4) 중 세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7점
(1)~(4) 중 두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5점
(1)~(4)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학교에서 하는 일을 떠올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모두 쓴 경우	10점
학교에서 하는 일을 떠올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쓴 경우	6점
학교에서 하는 일을 떠올려 간단하게 한 가지를 쓴 경우	3점

-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 한 문단의 글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학교에서 하는 일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게 한 문단으로 알맞게 쓴 경우	10점
학교에서 하는 일을 한 문단으로 썼으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경우	5점

3. 알맞은 높임 표현

단원 평가 1회

14~15쪽

- 1 (1) ② (2) ① 2 ⑤ 3 -시-
4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등 5 ①
6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이다. / 화가 나실 것이다. 등
7 ④ 8 이에요 9 ⑤
10 예 높여서 말할 대상이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시-’를 넣고 ‘께서’도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 1 대화 ㉠에서는 동생인 진수가 듣고 있고, 대화 ㉡에서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2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대화 ㉠에서는 듣는 사람이 동생인 진수로, 말하는 사람보다 어리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3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어 높임을 표현하였습니다.
4 할아버지는 웃어른이므로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습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맺는 것으로 높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6 여자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해 할머니께서는 화가 나실 것입니다.
7 꾸미는 말은 언어 예절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여자아이는 엎드린 자세로 대화하고 있으므로 바른 자세로 말해야 합니다.
② 여자아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③ 여자아이는 ‘지난겨울에 찍은 제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셔도 한번 보시겠어요?’라고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여자아이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보며 대화하고 있으므로 듣는 사람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 8 ‘이세요’라고 ‘-시-’를 넣어 표현하면 물건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9 선생님께서 높임 표현을 쓰고, 친구인 수현이는 높이지 않습니다.

- 10 선생님을 높여서 말해야 되는 것과 수현이는 높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채점 기준 선생님을 높여야 해서 ‘께서’, ‘-시-’를 넣었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평가
교재

단원 평가 2회

16~17쪽

- 1 (1) 어머니 (2) 께, 드릴 2 ③
3 진지 4 ⑤ 5 드릴
6 ③ 7 예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8 ⑤
9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등
10 예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여 ‘갓다주래요’를 ‘갓다드리래요’ 또는 ‘갓다드리라고 하셨어요’로 표현해야 한다.

- 1 선물을 줄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인 어머니이고, ‘께’, ‘드릴’의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 ‘다녀왔습니다’, ‘좋겠습니다’와 같이, 두 대화에서 모두 ‘-습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3 웃어른께는 ‘밥’이라고 하지 않고 ‘진지’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4 ‘밥’ 대신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진지’를 사용하였습니다.
5 ‘주다’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 ‘드리다’로 써야 높임 표현이 됩니다.
6 ‘나오셨습니다.’에서 ‘-시-’를 사용해서 음식을 높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7 음식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대신에 ‘나왔습니다.’로 표현합니다.
8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께서’와 ‘-시-’를 넣어 말해야 합니다.
9 아버지를 높이고 여자아이는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께서’와 ‘-시-’를 넣어 표현합니다.

- 10 ‘어머니께서 갖다드리래요.(갖다드리라고 하셨어요.)’가 알맞은 높임 표현입니다.

채점 기준 ‘갖다주래요’ 대신 ‘갖다드리래요’, ‘갖다드리라고 하셨어요’로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 평가

18쪽

- 1 예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이다.
- 2 예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나 ‘께’를 사용한다.
- 3 예 바른 자세로 말한다.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 예의 바르게 말한다.
- 4 예 네, 거실에 계세요.
- 5 예 물건인 쟁반을 높이고 있다.
- 6 예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 1 선생님을 높여서 ‘께서, 가신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쓴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라는 내용으로 쓴 경우	5점

- 2 ‘할아버지가’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나 ‘께’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5점

- 3 여자아이는 바르지 않은 자세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여자아이가 잘못된 점을 알고 지켜야 할 바른 언어 예절을 쓴 경우	5점

- 4 듣는 사람이 어머니이므로 ‘네’를 쓰고, 거실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있어’ 대신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 ‘계세요’를 사용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네, 거실에 계세요.’ 또는 ‘네, 거실에 계십니다.’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쓴 경우	5점

- 5 ‘예쁘세요’에서 ‘-시-’를 사용하여 쟁반을 높였습니다. 물건인 쟁반을 높일 필요는 없으므로 ‘쟁반이 너무 예뻐요.’라고 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물건에게 높임 표현을 썼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5점

- 6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께서’와 ‘-시-’를 넣고,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끝맺는 말에 ‘요’를 넣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께서’, ‘-시-’, ‘요’를 넣어 높임 표현으로 잘 고친 경우	5점
높임 표현으로 고친 것 중 일부만 바르게 쓴 경우	2점

수행 평가

19쪽

- 1 예 누나,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라고 하셨어.
- 2 예 아주머니께서 댁에 계실까요?
- 3 예 어머니, 선생님께서 이 통신문을 어머니께 갖다드리래요.(갖다드리라고 하셨어요.)

- 1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누나에게 전하는 상황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영수의 말을 ‘께서’, ‘-시-’를 넣어 높임 표현으로 바르게 쓴 경우	10점
높임 표현으로 고친 것 중 일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2 아주머니를 높여서 말하고 ‘집’ 대신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인 ‘댁’을 사용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훈민이의 말을 ‘께서’, ‘댁’, ‘계시다’를 넣어 높임 표현으로 바르게 쓴 경우	10점
높임 표현으로 고친 것 중 일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3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어머니께 전해 드리는 상황이므로 선생님과 어머니 둘 다 높여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께서’, ‘께’, ‘갖다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으로 바르게 쓴 경우	10점
높임 표현으로 고친 것 중 일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단원 평가 1회

20~21쪽

1 ④

2 예 넘어져서 속상했지? /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3 ③

4 ④

5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 많이 속상했지

6 ①, ②

7 ③

8 상점 등

9 ⑤

10 예 친구 수정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친구가 달리기에서 넘어졌으니 속상할 것입니다. 친구를 위로하기에 알맞은 상황이므로 위로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넘어져서 속상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 민경이는 달리기 경주를 해서 진 일로 나리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손을 다쳤을 때 나리가 가방을 들어 주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졌잖아’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쓴 편지인지 생각하여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습니다.
- 민주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데 어머니께서는 ‘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생 편을 드시는 어머니께 화나고 서운한 마음입니다.
-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바꾸어 써도 뜻이 바뀌지 않는 말을 떠올려 씁니다.
- ‘전하고 싶은 말’ 부분에 영주를 위로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 주변에서 축하, 격려, 칭찬, 위로하는 마음 등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전하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22~23쪽

1 (1) ② (2) ③ (3) ①

2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이다. 등

3 ①

4 ②

5 고마운 마음

6 ⑤

7 ②, ④

8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등

9 엄청난, 근사한, 훌륭한, 대단한 등

10 ②

- (1)은 축하하는 마음, (2)는 고마운 마음, (3)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상황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1)은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상황이고, (2)는 짝이 책을 빌려주는 상황이고, (3)은 친구의 그림에 물통을 얹지른 상황입니다.

- 손자 정혁이가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기뻐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가 정혁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민재는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호준이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 엄마가 입던 옷으로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 민서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가져다주셨습니다.
- 어머니께서 학교로 물감을 가져다주셔서 고마웠을 것이고,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이 죄송할 것입니다.
- 글쓴이는 아빠가 취직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을 편지에 썼습니다.

채점 기준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마음이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바꾸어 써도 뜻이 바뀌지 않는 쓰임에 따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떠올려 봅니다.
- 문장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교재

서술형 평가

24쪽

- 1 예 나리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2 예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호준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
- 3 예 나도 처음에는 한자 쓰기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한자왕이 된 적이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 4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선 것 등
- 5 예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1 민경이는 나리가 가방을 들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달리기에서 저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나리에게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전하거나 표현하기 위해라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 2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호준이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호준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 3 친구를 위로하는 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하는 말을 잘 쓴 경우	6점
위로하는 말을 쓰긴 했으나 경험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경우	3점

- 4 민서는 동생이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데, 동생 편만 드는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 5 민서는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새로 산 물감을 가방에서 꺼내며 자랑하는 짝 정아에게 짜증이 난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아침에 집에서 있었던 일로 민서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짝의 말에 괜히 짜증이 난 것을 잘 파악하여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25쪽

- 1 (1) 예 누나
(2) 예 누나가 좋아하는 책을 실수로 찢었다.
(3) 예 당황스러웠고 누나에게 미안했다.

- 2 예 누나에게

누나, 안녕? 나 ○○이야.

누나, 저번에 내가 누나가 좋아하는 책을 찢어서 속상했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나도 그 책을 읽어 보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다가 그만 실수로 찢은 거였어.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어. 그래서 누나가 더 화가 났을 거야. 나도 누군가가 내 물건을 만지다가 망가뜨리면 화가 났을 거야.

앞으로는 누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화내지 말고 나랑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자. 그럼 안녕.

20○○년 ○월 ○일

누나랑 즐겁게 놀고 싶은 동생 ○○

- 1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려 누군가에게 고마웠거나 미안했던 경험, 또는 위로하고 싶거나 축하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3)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있었던 일, 생각이나 느낌을 잘 쓴 경우	10점
(1)~(3) 중 두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6점
(1)~(3)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 2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써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는 편지의 형식에 맞게 발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 등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편지의 형식에 맞게 글을 잘 쓴 경우	20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넣었으나 편지의 형식이 잘 맞지 않는 경우	10점

정답 친해지기 마음이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

-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게 씁니다.
-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씁니다.
- 편지의 형식에 맞게 씁니다.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단원 평가 1회

26~27쪽

- 1 (1) ② (2) ③ (3) ① 2 민수
3 ② 4 북, 재물 5 (1) ○ (3) ○
6 ①
7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등
8 ⑤
9 예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입니다.
10 책을 고른 까닭, 소개할 내용, 책을 읽고 느낀 점 등

- 1 그림 ㉠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상황이, 그림 ㉡에서는 심부름을 가면서 기억할 것이 많은 상황이, 그림 ㉢에서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2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녹음이나 메모를 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들은 내용을 모두 적었습니다.
4 우리 조상은 제비를 북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메모하는 방법

-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씁니다.
-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씁니다.

- 5 어제 본 만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메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메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선비들이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나 솜씨 좋은 화원이 그린 작품들은 오래 두고 감상하는 그림이지만, 민화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7 문단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봅니다. 중심 문장에 글 속에 있는 다른 정보를 붙이거나, 중심 문장을 줄여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8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9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글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습니다.

채점 기준 두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이어서 글 전체 내용을 잘 간추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책 제목, 소개하는 까닭, 책을 고른 까닭, 소개할 내용, 책을 읽고 느낀 점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원 평가 2회

28~29쪽

- 1 옛이야기 속 과학 지식을 조사하는 것
2 ② 3 의사 4 ⑤
5 ③, ⑤ 6 ① 7 글 ㉡
8 예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
9 ⑤ 10 ㉠

- 1 ‘우리 모두 과제는 옛이야기 속 과학 지식을 조사하는 것이지?’라는 말에서 민견이네 모두 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2 민견이네 모두의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메모가 필요합니다.
3 동물의 병을 치료해 주는 직업인 ‘수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수의사는 애완동물부터 가축, 야생 동물, 희귀 동물까지 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5 메모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씁니다.
6 약기를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누어 약기의 종류에 대해 쓴 글입니다.
7 글 ㉡가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짧게 간추려 썼습니다. 글 ㉠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썼고, 글 ㉢은 중요한 내용을 낱말 중심으로 짧게 썼습니다.

평가
교재

8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잘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중요한 내용을 찾아 그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를 간추립니다.

10 ㉠은 책 제목과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입니다.

서술형 평가

30쪽

1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면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이다. 등

2 예 너무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

3 예 글 ㉠은 자세하게 알려 주는 글을 쓸 때 필요하고, 글 ㉡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필요하다.

4 (1)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 예요. 등

(2)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등

(3) 민화는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등

5 예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이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1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으므로 메모가 필요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메모가 왜 필요한지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6점

2 수영이의 메모를 보고, 중요한 내용을 알기 힘들니다.

채점 기준	점수
중요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6점

3 글 ㉠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썼고, 글 ㉡는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짧게 간추려 썼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 ㉠과 ㉡와 같은 쓰기 방식이 각각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쓴 경우	6점
글 ㉠과 ㉡와 같은 쓰기 방식이 필요한 경우를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3점

4 각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경우	6점
두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경우	3점
한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경우	1점

5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만들 때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이어서 하나로 묶어 잘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31쪽

1 예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

2 현악기: 가야금, 바이올린
관악기: 단소, 트럼펫

3 예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1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하여 쓴 경우	10점

2 악기의 종류인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를 낱말 중심으로 정리하여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현악기, 관악기를 쓰고 예까지 쓴 경우	10점
현악기, 관악기만 쓰고 예를 쓰지 않은 경우	5점

3 생물에 물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쓴 경우	10점

6. 일이 일어난 까닭

단원 평가 1회

32~33쪽

- 1 쓰레기 정거장 2 ⑤
3 (아기) 참새 4 ③
5 승호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등
6 ⑤
7 (1) 예 자전거 타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다.
(2) 예 혼자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었다.
8 예 친구 / 쌍둥이 9 ⑤
10 민아

-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어두워지면 나가기 무섭고,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정거장을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습니다.
- 승호는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하고 잘 날지 못하는 아기 참새를 잡았습니다.
- 아기 참새가 잘 날 수가 없으니 잘 날 수 있을 때까지만 키우자고 하였습니다.
-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는 원인 때문에 승호가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가 키우기로 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 리코더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원인) 학예회에서 자신 있게 리코더를 연주했다(결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린 뒤, 그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기억에 남는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그림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두 아이는 친구일 수도 있고, 쌍둥이 남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해 봅니다.
- 그림 ①에서 보라색 새가 두 친구를 발견하고, 그림 ②에서 보라색 새의 안내로 두 친구가 큰 문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 그림 ④를 보면 온 세상이 제 색깔을 다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 평가 2회

34~35쪽

- 1 (1) ① (2) ② 2 ④, ⑤
3 쓰레기 정거장이 생겼다. 등 4 ⑤
5 원인(까닭) 6 ⑤ 7 ④
8 예 동화책 속의 세계로 이동할 때 있었던 일이다.
9 ④
10 예 환상의 무지개 나라를 찾아서

-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합니다.
- 어두워지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무섭고,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 쓰레기 때문에 생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 승호는 짹짹콩콩이가 걱정되었기 때문에(원인) 저녁에 교실에 간 것입니다.(결과)
-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해야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속담으로 “아니 때린 장구 북소리 날까.”, “뿌리 없는 나무에 잎이 필까.” 따위가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원인과 결과가 모두 잘 드러나게 씁니다.
-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해 봅니다.

채점 기준 그림 ①~④에 어울리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상상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그림 ③에서 문에서 나온 주황색 옷의 할아버지가 주황색 막대를 꺼냈고, 그림 ④에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색깔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평가
교재

10 두 친구가 여러 가지 색깔의 막대를 찾아내어 온 세상이 제 색깔을 다 찾게 되는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서술형 평가

36쪽

- 1 예 어두워지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무서웠다. /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했다.
- 2 예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3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교실에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등
- 4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등
- 5 예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어두워지면 무서웠고,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어두워지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무섭다거나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불편하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2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했고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정거장이 생긴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 등으로 쓰레기 정거장이 생긴 원인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3 저녁이어서 교실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교실에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4 승호가 아기 참새를 걱정하여(원인) 저녁에 교실로 갑니다.(결과)

채점 기준	점수
승호가 저녁에 교실로 갔다는 내용으로 결과를 바르게 정리하여 쓴 경우	6점

5 원인과 결과를 알맞게 말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37쪽

1 예 ① → ④ → ③ → ②

2 (1) 예 커다란 문이 갑자기 열리고 노인이 나타났다. /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색깔의 막대를 모았다.

(2) 예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으로 변했다.

3 예 두 아이는 어두워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마법의 색깔 막대를 찾으러 다녔다. 마법의 색깔 막대가 있는 지도를 보며 길을 떠난 두 아이는 보라색 새를 만났다. 보라색 새가 길을 안내해 주어 아이들은 어느 커다란 문 앞에 도착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주황색 색깔 막대를 주었다. 아이들은 색깔 막대를 모두 찾아서 마침내 세상을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었다.

1 보라색 새의 위치가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이들 곁으로 갔고, 커다란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뒤에 세상의 색이 알록달록하게 변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일어났을 일의 차례를 알맞게 짐작해 쓴 경우	5점

2 그림의 한 장면, 또는 여러 장면에 걸쳐서 일어났을 일의 흐름을 보고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일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 (1)에 원인, (2)에 결과를 알맞게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5점

3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여 차례대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일의 원인과 결과에 맞게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 쓴 경우	15점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일의 원인과 결과가 다소 부족한 경우	5점

7. 반갑다, 국어사전

단원 평가 1회

38~39쪽

- 1 ① 2 ① 3 ②
4 ① 5 묶다 6 ⑤
7 솟다
8 (1) 조심성 없이 등 (2)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등
9 ⑤
10 그윽하다 → 누리 → 지게 → 햇귀 → 희나리

- 1 국어사전에 실는 낱말 차례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례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국어사전 특징

결 모 습	앞표지	• 사전 이름이 있음. • 국어사전에 실는 내용이나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이름을 덧붙임.
	옆모습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자음 차례대로 둠.

- 2 ‘가을 - 고슴도치 - 두부 - 라디오 - 발등’의 차례로 실습니다.
- 3 ‘소금’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 4 밑줄 그은 부분에서 ‘떡’ 부분은 모두 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 5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6 ‘불지’의 기본형은 ‘불다’입니다.
- 7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솟’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8 앞뒤 내용을 통해 낱말 뜻을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을 통해 바른 뜻을 알아둡니다.

채점 기준 (1)에 ‘함부로’의 뜻을 짐작하여 쓰고, (2)에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이 글을 통해 새로 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 10 첫 글자의 첫 자음자를 살펴보고, 첫 글자의 첫 자음이 같으면 모음자를 살펴봅니다.

단원 평가 2회

40~41쪽

- 1 예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2 ①
3 예 ‘가게’는 첫 글자의 모음자가 ‘ㅏ’이므로 첫 글자의 모음자가 ‘ㅏ’인 ‘거미’보다 국어사전에 먼저 실
는다. 4 ⑤
5 (1) 높 (2) 고 (3) 은 (4) 높 (5) 아서
6 ② 7 ⑤ 8 삼진날
9 ㄴ → ㄹ → ㄷ → ㄱ 10 ②

- 1 낱말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는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2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을 때에는 ‘낱말의 첫 글자의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과 같은 차례대로 찾습니다.
- 3 한글 글자는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어사전에는 글자 각각에 쓰인 낱자 차례대로 낱말을 실습니다.

채점 기준 모음자는 ‘ㅏ’보다 ‘ㅑ’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거미’보다 ‘가게’를 국어사전에 먼저 실는다는 내용 등으로 바르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①은 ‘가을, 두부, 마을’, ②는 ‘사슬, 사슴, 사진’, ③은 ‘나비, 라디오, 사탕’, ④는 ‘바다, 발등, 발자국’의 차례로 국어사전에 실습니다.
- 5 ‘높’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를 붙인 ‘높다’가 기본형이 됩니다.
- 6 ‘먹다-불다-얹다-입다-있다’의 차례로 국어사전에 실습니다.
- 7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나옵니다.
- 8 ‘음력 삼월 초사흘날’은 ‘삼진날’의 뜻입니다.
- 9 첫 글자의 자음자 ‘ㄱ-스-ㅇ-ㅍ’의 차례로 국어사전에 실습니다.
- 10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아 바르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평가
교재

서술형 평가

42쪽

- 1 예 모르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이다. / 낱말의 뜻을 모를 때 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예 받침이 없는 ‘하’로 시작하는 ‘하늘’을 받침이 있는 ‘학’으로 시작하는 ‘학교’보다 먼저 씀니다.
- 3 예 국어사전에 형태가 바뀐 낱말을 모두 실으면 국어사전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 4 예 입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 5 (1) 예 조상
(2) 예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
- 6 예 천연 색소로 쓸 수 있는 자연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 1 낱말의 뜻을 모를 때 국어사전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5점

- 2 국어사전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를 받침이 있는 글자보다 먼저 씀니다.

채점 기준	점수
첫 자음자, 모음자가 같을 경우 받침이 없는 글자를 받침이 있는 글자보다 먼저 씀한다는 내용으로 알맞게 쓴 경우	5점

- 3 국어사전에 형태가 바뀐 낱말을 모두 실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형만 실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모두 실으면 국어사전이 두꺼워지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바르게 쓴 경우	5점

- 4 ‘입다’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의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기본형 ‘입다’를 쓰고,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의 뜻을 가진 ‘입다’를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5점
기본형 ‘입다’만 바르게 쓴 경우	2점

- 5 뜻을 모르는 낱말을 찾아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뜻을 모르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낱말을 쓰고, (2)에 그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확히 쓴 경우	5점
(1)만 찾아 쓴 경우	2점

- 6 글을 읽고 알고 있는 내용, 새로 안 내용을 떠올려 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먹을 수 있는 꽃 요리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쓴 경우	5점

수행 평가

43쪽

- 1 (1) 예 우리 조상은 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2) 예 삼진날에는 진달래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 2 (1) 즐기고, 둥글납작하게, 부쳐서
(2) 삼진날, 화전, 번철
- 3 (1) 예 즐기고 / 예 즐기다 / 예 즐겁게 누리거나 맛보다.
(2) 예 둥글납작하게 / 예 둥글납작하다 / 예 생김생김이 둥글고 납작하다.
(3) 예 부쳐서 / 예 부치다 / 예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같은 음식을 익혀서 만든다.

- 1 글을 읽고 새로 안 내용을 정리하여 두 가지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을 읽고 새로 안 내용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5점
글을 읽고 새로 안 내용을 한 가지 알맞게 쓴 경우	2점

- 2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채점 기준	점수
형태가 바뀌는 낱말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을 모두 바르게 나누어 쓴 경우	10점
형태가 바뀌는 낱말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을 대부분 바르게 나누었으나 1~2개 정도 틀린 경우	5점

- 3 기본형을 찾아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은 뒤에,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뜻을 찾아 씀니다.

채점 기준	점수
‘즐기고’, ‘둥글납작하게’, ‘부쳐서’의 기본형을 모두 알맞게 쓰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도 찾아 정확하게 쓴 경우	15점
‘즐기고’, ‘둥글납작하게’, ‘부쳐서’ 중 두 가지의 기본형과 낱말의 뜻을 바르게 쓴 경우	10점
‘즐기고’, ‘둥글납작하게’, ‘부쳐서’ 중 한 가지의 기본형과 낱말의 뜻을 바르게 쓴 경우	5점
‘즐기고’, ‘둥글납작하게’, ‘부쳐서’의 기본형만 바르게 쓰고 낱말의 뜻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8. 의견이 있어요

단원 평가 1회

44~45쪽

- 1 ② 2 오성
3 넓고 좁음, 길고 짧음 등 4 ②
5 (1) ① (2) ③ (3) ② 6 ①
7 예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8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릅니다.
9 ① 10 예 복도를 사용할 때 규칙이
있으면 더 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 1 옆집 하인은 가지가 자기네 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감이 자기네 것이라며 오성이 감을 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옆집 하인과 오성의 의견과 까닭

옆집 하인	의견	감은 우리 것이다.
	까닭	우리 집으로 가지가 넘어왔기 때문이다.
오성	의견	감은 우리 것이다.
	까닭	감나무는 우리 집에서 심고 가꾸었기 때문이다.

- 2 오성의 말에서 오성의 의견과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 부인은 옷감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데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가위가 하는 일은 옷감을 자르는 일입니다. 가위 색시는 옷감을 잘라 줘야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5 부엉이는 먼저 본 다람쥐가, 앵무새는 먼저 말한 다람쥐가, 토끼는 먼저 주운 다람쥐가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6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가
가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7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어울리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8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9 약속을 잘 지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10 의견에 어울리는 까닭을 들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복도에서는 오른쪽으로 사뿐사뿐 걸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46~47쪽

- 1 ⑤ 2 ③
3 바느질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등
4 ④
5 예 나도 홍실 각시와 생각이 같다. 왜냐하면 실이 없으면 바늘도 소용이 없고, 실이 있어야 천을 튼튼히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②
7 지구를 깨끗이 가꾸고 유지하자. 등
8 ⑤ 9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10 ②

- 1 오성이 창호지를 바른 방문 안으로 팔을 쭉 들이밀자 책을 읽고 있던 권 판서 대감은 방문을 뚫고 들어온 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권 판서 대감은 감나무 뿌리가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감이 오성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바늘 각시와 홍실 각시는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바늘 각시는 옷을 꿰매고 만드는 데 바늘이 꼭 필요하다는 까닭을 들었습니다.
5 바느질에서 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홍실 각시의 의견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까닭과 함께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실이 있어야 꿰매고 옷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홍실 각시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 때 잘 썬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7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정리하고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봅니다.

평가
교재

- 8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을 까닭으로 들어야 합니다. 책에 좋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 좋은 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 9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 10 운동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 그림입니다.

서술형 평가

48쪽

- 1 팔이 어디에 있는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내 것인 것처럼 감나무의 가지도 감나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서 감이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등
- 2 감은 오성의 것이다. 등
- 3 자신이 구겨지고 접힌 곳을 펴 줘야 옷의 맵시가 나기 때문이다. 등
- 4 지구가 병든다고 하였다. 등
- 5 예) 사람들에게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 사람들에게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 1 오성은 자신의 몸을 감나무에, 팔을 감나무의 가지에 빗대어 감나무의 가지도 감나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감나무의 가지도 감나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서 감이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내용 등으로 알맞게 쓴 경우	6점

- 2 권 판서 대감의 말에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권 판서 대감은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감이 오성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감이 오성의 것이라고 바르게 쓴 경우	6점

- 3 다리미 소저는 구겨지고 접힌 곳을 자신이 펴 주어서 옷의 맵시가 나게 하기 때문에 바느질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한 까닭으로 자신이 구겨지고 접힌 곳을 펴 줘야 옷의 맵시가 나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4 한 번 쓰고 난 뒤에 무심코 버리는 일회용품은 지구를 병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지구가 병든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바르게 쓴 경우	6점

- 5 일회용품을 덜 써서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고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일회용품을 덜 써서 사람들에게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 등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49쪽

- 1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등
- 2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니다. 등
- 3 (1) 예)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미리 해 두어야 한다.
(2) 예)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미루면 결국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5점

- 2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습관을 기르자고 썼으나 좋은 습관이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	5점

- 3 자신이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까닭을 함께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자신이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을 쓰고, (2)에 그 까닭을 알맞게 쓴 경우	15점
(1)에 자신이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쓴 경우	5점

9. 어떤 내용일까

단원 평가 1회

50~51쪽

- 1 ④ 2 ① 3 닳다
4 ⑤ 5 분명한 / 확실한 등
6 예 끈끈이 / 달라붙게 하는 것
7 다슬기나 달팽이 8 ⑤
9 ⑤ 10 예 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승강
기가 멈춰서 사람이 갇히게 될 수 있다.

- 국어사전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뜻을 찾거나, 앞뒤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빨이 계속 자란다고 하였고, 쉬지 않고 나무를 쓸거나 딱딱한 열매를 갉아 먹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빨을 짧게하고 줄어들게 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닳’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여섯 명이 계속해서 볼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자 아주머니는 볼펜을 ‘프린들’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 ‘어엿한’ 대신 바꾸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낱말을 생각해 봅니다.
- 담쟁이덩굴을 착 붙어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어른 반딧불이는 이슬을 먹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고 한 내용의 단서와 민수의 경험에서 반딧불이는 자연환경이 맑고 깨끗한 곳에 가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석주명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였고, 몸을 다쳐 가며 나비를 잡고 있습니다.
- 지진이 나면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 승강기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할 경우에 화재, 연기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짐작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52~53쪽

- 1 강이나 바다, 호수 등의 물의 깊이 등
2 ③ 3 예 연필이 닳아서 짧아졌다.
4 프린들 5 ④ 6 ③
7 예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모습을 보려면 어두운 밤에 관찰해야 한다.
8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 등
9 ⑤ 10 예 특별히 알림.

- ‘수십’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 채소의 싹을 먹기도 하지만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도토리, 밤, 땅콩, 호두, 잣과 같이 껍질이 딱딱한 열매입니다.
- ‘닳다’는 ‘갈리거나 오래 쓰여서 어떤 물건이 닳아지거나, 그 물건의 길이, 두께, 크기 등이 줄어들다.’의 뜻입니다.
- 아이들은 ‘펜’ 대신에 ‘프린들’이라는 말을 쓸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 ‘서약서’ 대신 넣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낱말을 찾습니다. ‘서약서’는 ‘맹세하고 약속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를 뜻합니다.
- ‘떨어지지 않게 붙임.’은 ‘부착’의 뜻입니다.
- 어두운 밤이 되어야 반딧불이가 내는 빛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어두운 밤에 관찰해야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석주명은 영국왕립아시아학회의 부탁을 받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 석주명이 책을 쓰는 데 온갖 정성을 쏟은 점을 단서로 생각해 봅니다. 또, 친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고 싶고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경험을 떠올려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 글의 앞뒤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거나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 봅니다. ‘특보’는 ‘특별히 보도함, 또는 그런 보도’라는 뜻입니다.

평가
교재

서술형 평가

54쪽

- 1 예 신문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말이 나와 기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
- 2 겨울잠을 자려고이다. 등
- 3 예 다람쥐는 이빨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나무를 쏘거나 딱딱한 열매를 갈아 먹는다는 것에서 짐작하였다.
- 4 (1)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 등
(2) 예 나는 앞으로 절대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 5 예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 1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어 고민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자세히 쓴 경우	6점

- 2 겨울잠을 자려고 가을에 먹이를 많이 먹어 둥니다.

채점 기준	점수
겨울잠을 자려고라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 3 다람쥐가 나무와 딱딱한 열매를 이용해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달게'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달게'의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통해 짐작한 것인지 알맞게 쓴 경우	6점

- 4 아이들이 엄숙하게 맹세하고 서명을 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서약서'의 뜻을 짐작하여 쓰고, (2)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의 뜻을 가진 '서약서'를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3점

- 5 환경 오염으로 애벌레의 먹이를 구하기 어렵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었다거나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3점

수행 평가

55쪽

- 1 (1) 예 별로 중요하지 않다. / 별로 좋지 않다. / 훌륭하지 않다.
(2) 예 아주 흔하다. / 너무 많아서 귀하지 않다.
- 2 예 반딧불이는 자연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데 옛날보다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 3 (1) 예 너무 흔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 했을 정도로 보잘것없게 여겼기 때문이다.
(2) 예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즘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정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나빠져서 반딧불이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1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거나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 보고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보잘것없고', (2)에 '지천'의 뜻을 모두 바르게 짐작하여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2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나 달팽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는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딧불이를 만나기 어려운 까닭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바르게 짐작하여 쓴 경우	10점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었다거나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내용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3 옛날에는 반딧불이를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도시에서는 반딧불이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개똥벌레'라고 부를 정도로 반딧불이가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쓰고, (2)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정할 정도로 반딧불이를 보기 힘들어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짐작하여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짐작하여 쓴 경우	5점
옛날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하여 쓴 경우	5점



10. 문학의 향기

단원 평가 1회

56~57쪽

- 1 개구리가 편지를 쓰는 장면 2 ①, ②
3 ⑤ 4 ③
5 예 미안해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눈치채고 친구가
우산을 기울여 주는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다.
6 (1) ○ 7 ③
8 외로워하는 은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등
9 ②
10 우리가 읽은 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 1 초희는 개구리가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덕무는 두꺼비가 편지를 받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 2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3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거나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경험 등을 떠올릴 수 있는 시입니다.
- 4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 주느라 비를 맞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 5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지, 인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등을 떠올립니다.
- 채점 기준** 비 오는 날,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며 서로 배려하는 내용의 시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자세히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 7 친구들이 말을 잘 걸어 주지 않아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8 은지의 생각을 들은 만복이는 은지의 고민을 알고 먼저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 9 쓸모 없는 강아지 똥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꽃이 된다는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보충 자료 민들레의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라는 말에서는 강아지 똥에게 미안해하는 민들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0 덕무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읽은 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독서 잔치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 평가 2회

58~59쪽

- 1 ③ 2 민아, 종우 3 ③
4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등 5 ③
6 ① 7 예 장군이의 마음을 알고 용서하는 만복이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 장군이의 생각을 만복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재미있다.
8 ④ 9 예 사랑 / 희생 / 행복
10 ⑤

- 1 지은이가 사는 곳을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책을 소개할 때 들어가면 좋은 내용

제목, 줄거리, 소개하는 까닭, 재미를 느낀 부분, 감동받은 부분, 지은이, 책 분량, 그림 등

- 2 친구들에게 자신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읽은 책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친구들과 서로 읽은 책을 소개하면 좋은 점

-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 친구들이 소개한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혼자 읽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 3 말뚝구리는 하루 종일 말뚝을 굴리게 그냥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짦이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게, 사과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달팽이는 느릅나무 앞에서 꿈을 꾸게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 4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 5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비슷한 경험, 인물의 마음 등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 6 장군이에게 좋은 뜻으로 말했다가 얻어맞고는 화가 났는데, 장군이의 진심을 알고는 장군이를 용서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평가
교재

7 글에서 재미를 느낀 부분,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 등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만복이와 장군이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감동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아기별은 겹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9 강아지 똥의 희생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에 대한 감동을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봅니다.

10 독서 잔치에 대한 감상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술형 평가

60쪽

- 1 예 『활활 간다』에서 “기웃기웃 살핀다.”, “꼭 집어 먹는다.”라는 말에 도둑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재미있었다.
- 2 예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 주느라 비를 맞는 친구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 / 친구를 위해 자신이 빗물 고인 자리를 밟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 3 예 우산이 없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던 일이 있다. / 동생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장난을 쳤던 일이 떠오른다.
- 4 예 걱정하던 것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다.
- 5 예 만복이가 선생님의 고민을 듣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부분이 감동적이다.

1 읽은 책 가운데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 등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재미를 느낀 부분을 자세히 쓴 경우	6점

2 친구가 빗물 고인 자리를 밟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좁은 길에 왔을 때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빗물 고인 자리를 디뎠다는 내용 등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3 비 오는 날, 친구와 다정하게 우산을 나누어 쓴 경험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비 오는 날,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자세히 쓴 경우	6점

4 자신이 고민하던 부분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 준 만복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의 모습이 이상한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칭찬해 주는 만복이의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알맞게 쓴 경우	6점

5 글에서 재미를 느낀 부분, 인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기억에 오래 남는 부분 등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선생님을 배려하기 위해 칭찬하는 말을 하는 만복이의 모습 등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61쪽

- 1 말뚝구리 - ㉠, 베짖이 - ㉡, 사과나무 - ㉢, 달팽이 - ㉣
- 2 (1) 예 하루 종일 / 말뚝구리는 / 말뚝을 굴리게.
(2) 예 말뚝구리가 즐겁게 말뚝을 굴리는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 3 예 재미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게.

1 말뚝구리, 베짖이, 사과나무, 달팽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했는지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말뚝구리, 베짖이, 사과나무, 달팽이가 하는 일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경우	10점
말뚝구리, 베짖이, 사과나무, 달팽이가 하는 일을 두 세 가지 바르게 연결한 경우	5점
말뚝구리, 베짖이, 사과나무, 달팽이가 하는 일을 한 가지 바르게 연결한 경우	2점

2 시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시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쓰고, (2)에 그 까닭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1)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3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견 없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시로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시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쓴 경우	10점
자신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썼으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5점

중간 평가

62~64쪽

1 ①

2 소나기가 내리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등

3 갈매기

4 ①

5 ②

6 나무, 돌

7 ㉠

8 (3) ○

9 ②

10 (1) 아버지 (2) 선생님과 친구들

11 ④

12 스마트폰 / 사진 등

13 예 할머니와 대화할 때에는 바르게 앉아서 말하면 좋겠어. / 할머니께 말씀드릴 때에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자.

14 ④

15 ㉡

16 고마운 마음

17 ③

18 ③, ⑤

19 ③

20 예 민화는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 1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와 콩을 쏟는 소리가 비슷하게 느껴져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 2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구름 낀 하늘이 아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 3 ‘나’는 갈매기로, 바위섬에서 살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 4 ①은 귀로 들은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 5 문단은 문장이 몇 개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 6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7 ㉠과 ㉡은 뒷받침 문장입니다.
- 8 뒷받침 문장으로 불이 원시인의 삶을 바꾸어 놓은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 9 햄스터의 좋은 점이 뒷받침 문장으로 나왔으므로 햄스터를 좋아한다는 것이 중심 문장으로 어울립니다.
- 10 대화 ㉡에서는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있고, 대화 ㉢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11 두 대화 모두 ‘-습니다’로 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 12 여자아이는 스마트폰 / 사진을 보느라 할머니를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13 여자아이에게 지켜야 할 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알려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여자아이가 잘못된 점을 알고 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알려 주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4 호준이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15 ‘어제 있었던’에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6 꽃씨를 챙겨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7 편지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의 형식을 갖춥니다.

18 쓰임에 따라 ‘굉장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로는 ‘훌륭하다, 근사하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등이 있습니다.

19 소나무와 대나무, 모란, 불로초, 연꽃, 석류 등이 민화에 사용된 식물 소재에 해당합니다.

20 민화의 다양한 소재에 대한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점 기준 민화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간단하게 잘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중간 이후 기말 평가

65~67쪽

1 ⑤

2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등

3 ④

4 ①

5 ④

6 ①

7 자

8 먹다

9 예 먹을 수 있는 꽃은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10 내가 가장 중요하다. 등

11 ②

12 (2) ○ (3) ○

13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시다. 등

14 ④

15 다람쥐 등

16 ③

17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해 책으로 써 달라는 것

18 (3) ○

19 ⑤

20 예 ‘하루 종일 / 말뚝구리는 / 말뚝을 굴리게.’가 재미있었다. 말뚝구리가 즐겁게 말뚝을 굴리는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평가
교재

- 1 아기 참새는 잘 날지 못하고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 2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기 때문에 승호는 선생님께 가져다드리려고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왔습니다.
 - 3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 양치질을 잘하지 않은 결과로 이가 아픈 것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 5 ‘고구마-나비-두부-발자국-삶’의 차례로 국어사전에 실립니다.
 - 6 ‘높다’는 ‘높고, 높으니, 높아서’와 같이 형태가 바뀌는 낱말입니다.
 - 7 모두 ‘자’ 부분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 8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먹’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9 글을 읽고 알고 있는 내용이나 새로 안 내용을 정리해 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생각해 봅니다.
- 채점 기준** 먹을 수 있는 꽃을 먹을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자신이 바느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 11 골무 할미는 아씨의 손을 다치지 않게 시중드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 12 전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이 없습니다.
 - 13 좋은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 14 책을 읽을 때에는 좋은 책을 잘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 15 다람쥐의 이빨이 계속 자라는 것, 다람쥐의 먹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16 이빨을 짧아지게 하거나 줄어들게 한다는 뜻이 어울립니다.
 - 17 영국왕립아시아학회에서는 석주명에게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해 책으로 써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 18 영국왕립아시아학회에서 책을 써 달라는 편지를 받고 책을 쓰려고 온갖 정성을 쏟은 것 등에서 석주명이 책임감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을 것이라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9 ‘하루 종일 / 베짖이는 / 푸른 나무 그늘에서 / 노래 부르께.’라고 하였습니다.
- 20 재미를 느낀 부분,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 그 까닭과 함께 씁니다.

채점 기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쓰고,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전 범위 기말 평가

68~70쪽

- 1 ⑤
- 2 때를 쓰듯 몸을 비틀면서 낭송한다. 등
- 3 강정, 옛 4 ③ 5 ③
- 6 이 신발이 요즘 인기 있는 신발이에요.
- 7 정말 기뻐서 8 두근거리는 등
- 9 ②, ⑤ 10 (2) ○
- 11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은 짹짹콩콩이가 걱정되었다. 등 12 ⑤
- 13 가게-고양이-나비-라디오-하늘
- 14 ⑤ 15 입다 16 ④
- 17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 등
- 18 ① 19 ②, ④ 20 ⑤

- 1 울음을 내뿜는 동생을 물을 내뿜는 아기 고래라고 표현했습니다.
- 2 바동바동거리는 모습에 어울리는 동작을 표현하며 낭송합니다.
- 3 강정과 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과 ㉡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 5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시-’를 넣어서 물건인 신발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 6 신발을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신발이세요’는 ‘신발이예요’로 고칩니다.

- 7 나리가 가방을 들어 주어서 고맙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입니다.
- 8 ‘뛰는’ 대신 넣어 보고 뜻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 봅니다.
- 9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 10 읽거나 들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때 필요한 쓰기 방식의 글입니다.
- 11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겨 두고 온 짹짹콩이가 걱정되어 저녁에 교실로 갔습니다.

채점 기준 교실에 혼자 남은 짹짹콩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은 일에 대한 결과로 어울리는 것은 어려운 낱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13 첫 글자의 첫 자음자 차례를 보고 국어사전에 신는 차례를 생각합니다.
- 14 ‘작다, 넓다, 많다, 높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 15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입’에 ‘-다’를 붙여서 기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6 오성의 몸은 감나무를, 오성의 팔은 그 감나무에서 뻗어 나와 권 판서 대감 댁으로 넘어간 감나무 가지를 가리킵니다.
- 17 권 판서 대감은 감나무 뿌리가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감이 오성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더라도 나무의 뿌리는 오성의 집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한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8 자넷이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볼펜 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에서 ‘프린들’이 ‘볼펜’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9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 봅니다. ‘어엿한’을 ‘분명한’, ‘확실한’으로 바꾸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엿한’은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의 뜻입니다.
- 20 만복이는 외로워하는 은지를 도와주고 싶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8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